



[종합]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첫바퀴 돈 70차례 재판 05



Economy

코스피	2496.42 (0.00)	코스닥	873.05 (0.00)
금리 (미국 3년)	2.17 (+0.02)	환율 (원-달러)	1064.80 (-7.20) (12일)

#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 당국, 벌집계좌 원천 차단

앞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가 실명 확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관련기사 2·3면>

14일 금융당국이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킨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에 대한

출금 제한도 고려하는 '강력 카드'를 고려 중이지만, 이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가 나타날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 세탁이나 해킹 등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 당국은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 청소년·해외 거주 외국인 등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신하 기자 csh9101@

# 檢·국정원 힘 빼고 警 권한 강화

##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전

檢 독점 기소·수사권 축소 경제 등 특수사건만 인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대북·해외에 집중하면서 전문 정보기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의 (가칭)안보 수사처'로 이관된다.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수사권은 대폭 축소해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독립기구로 새로 탄생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1차적 수사는 경찰청내에서 역할이 나눠질 '국가수사본부'내 수사경찰이 각각 맡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 꾸준히 제시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는 기본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 광범위한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한 등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국정원은 그동안 선거 개입과 민간사찰, 거액의 특수활동비 전용 등으로 뼈를 깎는 강도높은 개혁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과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또 다시 이름이 바뀌게 됐다. 그러면서 대북 및 해외 정보수입에 전념하고 국내 정치 문제와 대공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기소 독점,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을 보유하고 있던 검찰도 이들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력화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온 것 등이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이번 개혁방안에 검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 수사 축소 등이 담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찰도 국가치안 등을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1차적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 그리고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로 각각 역할이 나뉜다. 특히 지역치안과 가정폭력 등을 수사하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시·도지사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경찰위원회를 통해 몸집이 커진 경찰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기를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전자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신규 가전 공장에서 출석식 행사를 가졌다. 좌측부터 팀 스킷(미 상원의원), 웨인 아담스(뉴베리카운티 대표), 조윤제(주미 한국대사), 김현석(삼성전자 CE부부장, 사장), 헨리 맥마스터(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연방 하원의원). /삼성전자

## 美 세이프가드에 선제대응

# 삼성, 세탁기 현지생산 시작

삼성전자가 미국 가전 공장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가전 공장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장과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석식 갖고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 공장에 2020년까지 약 3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연간 약 100만대의 세탁기를 생산한다.

오는 2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한 세탁기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참전용사와 불치병 어린이를 지원하는 자유와 희망 재단(Freedom & Hope Foundation), 가정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를 지원하는 보이즈 팜과 뉴베리 카운티 박물관에 기증해 의미를 더했다.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는 "삼성전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전 공장을 기회로 미국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하길 기대하며, 그 여정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함께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렘슨 대학 클렘슨,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과 함께 5년간 제조기술 등의 연구에 공동 투자하는 '팔메토 컨소시엄'을 체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 애경, 8월 홍대 신사옥 입주... 1300명 '통큰채용'

올해 4600억원 대 투자 AK홀딩스·애경산업 등 계열사 간 소통·협업 기대



애경그룹 홍대입구역 사옥 조감도. /애경그룹

애경그룹이 2018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정했다. 그 중심은 체질 개선이다. 먼저 계열사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8월 홍대 신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올해 4600억원대의 투자와 함께 1300여명의 신규 채용도 단행한다.

## ◆홍대 신사옥 입주로 시너지 극대화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그룹CEO)은 지난 12일 개최한 신년 임원워크숍에서 "2018년 새로운 홍대 시대를 열어 보다 젊고 트렌디한 공간에서 퀀텀 점프를 하자"며 "특히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에서 임직원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기 기대하며 훗날 홍대 시대 개막이 애경그룹의 새로운 도약의 시작

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사옥에는 그룹지회사 AK홀딩스를 비롯해 애경산업, AK캠텍, AM플러스자산개발, AK아이에스, 마포애경타운 등의 계열사가 입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사간 활발한 소통 및 협업 체계가 구축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사옥규모는 연면적 기준 약 5만3909㎡(1만6000평)으로 복합 시설동(판매시설·업무시설·숙

박시설·근린생활시설)과 공공 업무시설동 등이다.

오는 7월 준공 목표로 그룹 계열회사에서 이용하는 업무시설(7층~14층) 외에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Holiday Inn Express Seoul Hongdae) 호텔이 294실(7층~16층) 규모로 들어선다. AK플라자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1층~5층)이 입주할 계획이다.

신사옥이 완성되면 여행 및

쇼핑, 생활뷰티 등 애경그룹의 소비재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채형석 총괄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지주회사 전환, 이익중심경영, 사업효율화 등을 추진한 결과 성장을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자는 의지를 그룹 임원들과 공유했다.

채 총괄부회장은 "낯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자"며 "올해가 애경그룹이 대도약을 해야 할 원년"임을 선언했다.

애경그룹은 지난해 제주항공, 애경유휴, 애경산업 등 주요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실적에서 사상 최대 성과를 냈다.

최근 10년간 수익 중심의 경영을 한 결과 2008년 이후 재무구조가 매년 개선됐고 연평균 19%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면에 계속>

/김유린 기자 ujin6326@

## ‘유동성 위기’ 광물자원공 합작사업 파트너 지분 인수

최근 암바토비와 볼레오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들 지분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최근 합작사업 파트너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신 지분을 받았다.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암바토비 사업을 추진하는 캐나다의 웨릿은 지난해 12월 12일 사업 파트너인 광물자원공사, 일본의 스미토모에게 자사 지분 28%를 넘겼다. 두 기업에게 빌린 13억 달러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만약 사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광물자원공사만 위험 부담만 커질 수 있게 된 셈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광물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분 조정으로 웨릿의 지분 12.8%를 사실상 광물자원공사가 갖게 됐다.

사업 파트너인 이들 3사는 암바토비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보유 지분만큼 부담하기로 당초 계약했다.

광물자원공사와 스미토모는 웨릿이 최근 몇 년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투자금을 내지 못하자 그 돈을 대신 내왔는데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자 지분을 대신 받은 것이다.

광물자원공사가 웨릿에 빌려준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억3300만 달러다. 웨릿의 지분 15.2%는 스미토모가 인수하면서 현재 지분은 광물자원공사 40.3%, 스미토모 47.7%, 웨릿 12% 보유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사업에 2016년까지 15억 577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243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지분이 늘어나면 사업이 잘될 경우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악화되면 손실도 커진다. 실제 암바토비 광산은 지난 5일 마다가스카르를 강타한 사이클론 ‘에이바(Ava)’로 일부 장비가 손상돼 생산이 중단됐으며 이달 말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은 현지법인 MMB가 광물자원공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MMB에 작년 말까지 9억4740만 달러를 대부투자 형태로 빌려줬지만, MMB는 작년까지 원리금 1억5590만 달러를 상환했을 뿐이다. 원래 MMB는 작년 원금 5400만 달러와 이자 470만 달러를 공사에 상환해야 했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3개월 만에 하루 5兆 거래... 카카오의 힘!

## 가상화폐 거래소

### 국내 최대 거래 ‘업비트’

120만 회원·121개 코인 상장  
美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  
유동성 좋은 코인 우선 상장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국내 다른 거래소 대비 출발이 늦은 후발주자지만 거래규모면에서는 이미 빙썸과 1위를 다투고 있다.

14일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회원수는 총 120만명이며,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이다. 하루 최대 거래액은 10조원이며, 지난달 일평균 거래액은 5조원에 달한다.

업비트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 코인힐스 등에는 등재되지 않아 공식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비트의 거래 집계대로라면 국내 1위는 물론 세계 최대 거래량이다.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업비트는 출범 두 달 만에 1000대가 넘는 서버



를 확보해 운영 중이며,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업비트의 장점은 다른 거래소 대비 압도적인 코인 수와 카카오 브랜드에 따른 친숙함이다.

업비트에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121개 코인이 상장돼 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제휴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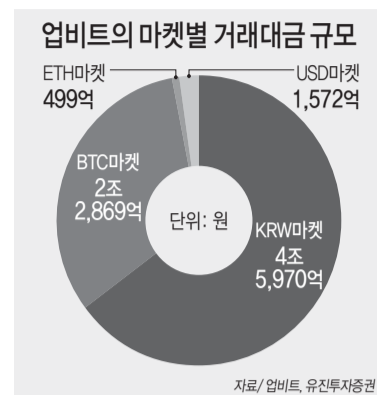
업비트 관계자는 “비트렉스는 상장 전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업비트는 비트렉스의 심사가 완료된 가상화폐들 중에서도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우선적으로 상장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마켓도 원화마켓, 비트코인마켓, 이더리움마켓, 테더마켓 등 4개를 운영 중이다. 원화마켓은 업비트가 단독 운영을, 기타마켓은 비트렉스 연동을 통해 제공한다.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손쉽게 계좌 개설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체는 두나무다. 카카오가 지분 약 23%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율은 8.8%지만 카카오의 100% 자회사인 케이큐브벤처스가 두나무의 지분을 약 13.3%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가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청년창업펀드도 약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정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간편한 ‘카카오페이 인증’을 이



용 중이다.

업비트는 증권 앱인 카카오스탁을 개발하고 운영한 두나무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PC는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실거래가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락스클린, 실시간 알림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두나무가 운영중인 카카오스탁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해 증권 모바일트레이닝시스템(MTS) 수준의 거래 안정성과 편의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日도 규제 강화... 거래소 ‘사전등록 의무화’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日 당국, 최소한의 규범으로  
시장육성·규제 균형 도모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등 각종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최소한의 규범을 통해 가상통화 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 도입과 상품 결제 점포 증가 등을 배경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말 1비트코인 당 968달

리에서 2017년 말 1만3860달러로 급등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일본에서 상품 구입 후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며 “엔화와 비트코인 간 거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주요국은 가상통화의 거래 증가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주요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미국·캐나다·EU·일본), 자산관련세법 적용(미국·영국·독일·일본), 부가가치세 부과(독일·싱가폴), 증권법 적용(미국·싱가폴) 등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가상통화거래 소(교환업자)의 금융업자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자본금 및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재산의 분리 보관과 거래 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일본 국제청은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등 과세 방침을 보다 구체화했다.

일본 당국은 아울러 과도한 가격변동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차입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세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업계의 자율규제 노

력을 지켜보며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이는 안정적인 가상통화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가상통화의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됨으로써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세 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정부 규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한줄 News

#### 정치·사회

▲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사실상의 ‘통합선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학교 시설의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에 의한 주변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가 전국 초·중·고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 서울시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흥행을 위한 ‘5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산업

▲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에서 선보인 마이크로 LED 기술 기반의 세계 최초 모듈러 TV ‘더 월’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

▲ 최근 항공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항공 운송이 일부 제한된다.

#### 금융·부동산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우수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2차 건복주택에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유통

▲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일반 계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고급 계란 수요가 급증했다.

▲ 식·음료 업계에서 국산 원료와 저칼로리를 강조한 다양한 신제품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축산 대기업의 방역 소홀이 키운 AI 사태

14건 중 9건 계열사 농장서 발생  
수사 의뢰·이동 중지 명령 발령

축산 대기업들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소홀이 AI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책임있는 방역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가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전남 강진의 종오리 농가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60개 농가의 닭 90만 4000마리와 오리 68만6000마리 등 총



지난 10일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전남 강진군 한 도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9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는 지난해 2016년 발생한 사상 최악의 AI 사태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가 매우 낮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 당시에는 50여 일간 무려 329건의 AI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올해 AI 발생 상황에서 주목되는 점은 14건 중 무려 9건이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중 계열사 ‘다솜’ 소속 농장에서 4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사조하인’ 소속 농장에서 2건, ‘참프

레’, ‘성실농산’, ‘제이디팜’ 소속 농장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이처럼 AI 발생 농장의 대부분이 계열사 소속 농장인 것으로 확인되자 농식품부는 계열사가 방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와 이동 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 주 역학조사 결과, 다솜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고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그 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며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들은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 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통화권력의 분권화로 싹터... IT와 결합 기존 금융체제 위협

## 신기루인가, IT혁명인가 코인 이야기

### 1 가상화폐, 누구나 번

채굴 가능 비트코인 2100만개  
가상화폐 종류 1400개 등장



지난해 12월 17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 비트코인 거래소 앞을 지나며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의 경우 2년 전 가격이 40만원에 달해 당시 비웃음을 샀지만 최근 한 때 2800만원까지 폭등하며 대한민국을 가상화폐 광풍으로 몰아넣었다. 가상화폐는 기존 금융시스템을 비롯한 체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마찰은 세대간 마찰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기성세대와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있다고 주장하는 2030 세대에게는 새로운 탈출구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광풍'으로까지 평가 받고 있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의 원천 기술인 블록 체인(Block Chain)을 총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많은 이들은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으로 시작됐다고 알지만, 사실 가상화폐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약 35년 전의 일이다. 일반적인 화폐는 모든 권리를 가진 중앙 화폐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권하며,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은행(FED)이 달러를 찍어낸다. 이러한 화폐 시스템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의 기관이 갖고 있어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 권한과 기능이 집약되기 때문에 그 기관과 화폐 발행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중앙 기관에서 비합리적인 운영이 발생하거나 화폐 가치를 조작하더라도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FED는 사립은행임에도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무분별한 화폐 발행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마지막 문제는 도난이다. 현물로 존재하는 돈은 그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도난에 취약하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제안 이후 가상화폐 본격 대두  
독립적이면서도 총량이 고정돼 있고

안전한 화폐를 만들고자 1983년 UC 버클리의 암호학자 데이비드 차움은 웹 보안에 쓰이는 RSA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상화폐 회사 디지털캐시를 창업했다. 거래내역을 익명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경영실패로 1998년 파산에 이르렀다.

그해 컴퓨터 공학자 닉 사보가 분산형 전자화폐 '비트골드'를 고안했다. 이 비트골드는 2009년 등장하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와 검증 구조의 근간이 됐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이후 2008년 10월 31일 세계 암호학 전문가들과 아마추어 등 수백 명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 발신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었다. 그는 "저는 당사자 간 일대일(P2P)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 통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9쪽 분량 보

고서 링크를 보냈다.

현재까지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이 인물(혹은 단체)이 만든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채굴 가능 총량이 2100만개로 제한됐으며 코인의 흐름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코인을 채굴·거래한 이들에게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1650만개 가량이 채굴됐다.

비트코인 등장 이후 현재까지 약 1400여종의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비트코인 외에는 비트코인의 대안(alternative)이라는 의미로 '알트코인'이라 불린다.

이들 가상화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3가지 방식이 대표적이다. 작업 증명(PoW), 지분 증명(PoS), 중요도 증명(PoI) 등이 그것이다. PoW 방식은 더 많이 가상화폐를 채굴한 이에게 더 큰 보상을 하고 PoS는 각자 가진 가상화폐 지분에 비례 보상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PoW는 비트코인, PoS는 '퀵'이 대표적인 가상화폐다. PoI는 각자 거래 실적에 따라 중요도를 계산, 중요도가 높은 이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한다. '뉴이코노미부먼트'가 대표 가상화폐다.

◆기존 금융시스템 위협하는 가상화폐 '규제'나 '진흥'이나 딜레마

가상화폐가 대두되면서 각국도 대응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 호주, 독일 등이 비트코인을 증권 또는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내에 포함했다.

중국은 사회주의체제 안정을 위해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거

래를 모두 금지시켰다. 동시에 인민은행에 의해 중앙집권화된 자체 가상화폐 개발에 나섰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도 자체 가상화폐 발행을 준비 중이다.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중이 15%에 달하는 한국에서도 규제 수준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 배후에는 '김치프리미엄'이 있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30% 이상 비싼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화폐가 제한적이기에 발생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외화송금법에 따라 개인은 외국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할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오는 것은 송금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취득하려면 국내에서 채굴된 가상화폐를 사거나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조달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높아진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화송금법을 완화해 국내로 들어오는 가상화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거래를 허용하는 순간 투기의 원인이 된 김치프리미엄은 사라진다"며 "더 추가해야 할 규제와 풀 규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규제만 더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면 김치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 한국은행 노조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해야”

“쓴소리 하며 비판받는데 속명”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한은의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노조는 전날 '서민 흘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가상통화 변동성과 투기성은 가상화폐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수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면서 "통화당국이

거짓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제 '와치독(Watch Dog·감시견)'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화폐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규정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한은이 적극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쓴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윌리엄 마틴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과거 언급한 바 있는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술을 치우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 문구를 인용했다.

한편 한은은 앞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이 거세지며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지급결제·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분석했다.

한은은 현재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볼 수 없고 일종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급성 인플루엔자 A형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인플루엔자 A형 감염 환자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 자격 요건

-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 시험 약 투여 전 48시간 이내 질환 발병한 대상자(체온이  $\geq 38.0^{\circ}\text{C}$  또는 호흡기 및 전신 증상 발병 대상자)
- ▶ 참여불가:
  - 인플루엔자로 항바이러스 치료 또는 연구 참여 전 14일 이내 항바이러스제 투약력이 있는 자
  - 연구 참여 전 21일 이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자
  - 현재 B,C형 감염 또는 HIV 감염 대상자

### 연구 절차

- ▶ 선별검사 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 본 연구에 등록 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치료제 1회 투여 및 체액 등의 기본 검사 진행.
- ▶ 약 110일의 기간 동안 7-10회의 방문 (상황에 따라 3일간 입원도 가능함)

### 참여 혜택

- ▶ 임상시험 기간 동안 전문 교수진의 집중적 진료 및 관리
- ▶ 임상시험의 모든 검사비용(혈액검사, 뇨검사 등)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 ▶ 입원비 및 소정의 교통비 등

### 실시 기관

-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고대안암병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평촌한림대 성심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 21개 기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1800-6883

※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위험(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檢 수사권에 재갈 물린 靑, 공수처 안착이 관건

##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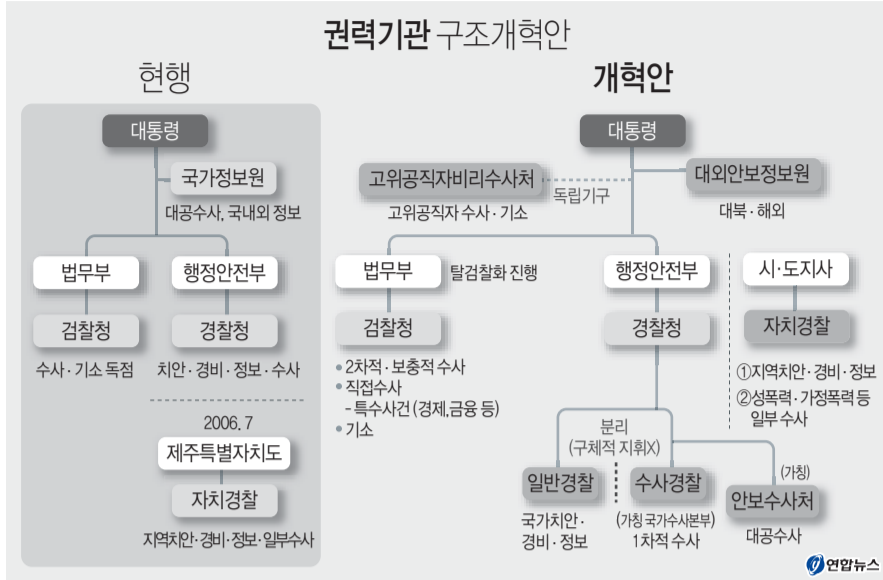
검찰의 '수사 총량' 줄여 권한 축소 경제 등 특수사건만 직접수사 한정 대공·안보 관련수사 경찰에 위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기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근본적 검찰개혁 차원에서 1차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보완적인 2차 수사권만을 검찰이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일정 범위에서 계속 중요 사건 수사(특수사건)를 맡



을 필요로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남겨둔 채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실상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공수처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발족하는 한편, 검찰이 지금껏 도맡던 중요 사건의 1차 수사를 경찰에 넘기는 등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검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우선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 중심으로 규정하기로 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검찰이 명분만 있으면 '중요 사건'을 이유로 1차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불 여지도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 영향을 지대한 검찰공안부서의 선거사범 수사 기능도 경찰에 대폭 이양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청와대가 제시한 방안대로

라면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과, 다른 한편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수사기관 간 운용의 묘를 통한 실행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점에서 올해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결과와 제도 개선 속도에 따라 비대해진 검찰권 분산·조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의 이날 발표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 안보 관련 수사는 앞으로 경찰이 도맡게 됐다.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만들어 그동안 이들 3개 기관이 해오던 대공·안보 수사를 한데 모아 담당하겠다는 것이 핵심 개편안이다. 최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개편안의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대공수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와 달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안보수사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안보수사처 조직은 아직 입법화 등 과정이 남아있지만, 기존 경찰이 보유한 보안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43개의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꾸리되 국정원과 검찰에서 담

당하던 대공수사 기능을 포함하면서 조직을 넓히는 형태가 된다는 의미다. 경찰이 가져오는 기능에는 수사의 사전 단계인 첩보수집 기능까지 포함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첩과 관련, "우리가 하던 대공수사가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내에는 물론 해외 연계 부분 등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대공수사 기법이나 그간 갖춰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아 공백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용산 화재 참사 등 5건에 대해 우선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5건은 경찰이 공권력을 개입해 인권침해가 이뤄졌던 주요한 사건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 사건 진상과 원인, 재발 방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 '청춘의 미래를 위한 부산'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조 수위 올리는 국민의당-바른정당

### 사실상 주축 '통합선언' 앞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사실상의 '통합선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대표는 이번 주 초 '통합 신당'의 창당 정신, 정체성, 정치개혁 등을 제시하는 정치개혁선언문(가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는 선언문 내용을 두고 마지막 조율 중이며, 조율이 마무리되면 기자회견 형식의 공동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통합선언을 하기로 한 데에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2·4임시전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반대파는 "날치기 의결"이라며 반발하면서, 전당대회 무효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거나 집단 탈당 등을 결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합 반대파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대표의 군사쿠데타식 불법 당무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수야합 불법 전당대회를 저지무산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하여 재창당하는 길과 함께 새로운 개혁신당

의 길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개혁신당창당추진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찬성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전당대회에서의 합당한 의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15일부터 김중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열어 전대시행세칙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명부 정리작업과 함께 사전투표 실시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통합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두 대표는 상징적인 통합선언을 통해 양당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유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를 확실히 결정한 만큼 전당대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찬성파에 '본격적 힘어주기'에 나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앞서 유 대표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론을 펼쳐오다 최근 통합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실질적인 공조 수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합추진위의 체를 통해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후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당명 공모, 정당정책 조율 등 준비를 위해 갖은 만남을 통한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기자

## 여야, 인재발굴 vs 조직결집... 지방선거 분주

### 6·13 지방선거 5개월여 앞으로 민주당 '인재발굴위원회' 구성해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고공행진 분위기 속에 인재발굴과 영입 방안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투톱'을 중심으로 여론전을 통한 보수 세력·조직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재발굴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원이 급증했으며, 현재 높은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출마 희망자도 넘치고 있어 고무적인 분위기다.

때문에 당 내부의 우수 인재를 찾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이에 준비위원회의 명칭도 기존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발굴위원회를 잠정적으로 정한 상황이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반발이 있어왔던 만큼 이 부분을 줄임으로써 부담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위원회를 통해 발굴·영입된 인재에 대해 지방선거·재보궐 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략공천' 등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는 분위기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이하 전략공천이 원천 금지돼 있지만, 발굴·영입 인재에 대한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현재처럼 전략공천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려울 뿐더러 발굴·영입 인재가 당내 경선에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시스템 공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

에 10% 이내의 제한적 전략공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인 여론전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와해된 보수 세력과 조직의 결집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대구·경북 지역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누비며 문재인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홍 대표의 행보는 15일 부산·울산, 16일 서울·강원, 17일 호남, 18일 인천·경기, 19일 제주 등 이번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홍 대표의 행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당 지지율을 현 정부와 강한 대립각을 세우며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택 등 설 대비 합동점검

### 대형마트·아울렛 등 소매점포 대상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33㎡(10평)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부

터 다음 달 14일까지 판매가격 표시, 단위 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17개 시·도의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 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 가 내 연구점과 약기점, 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혐의 많다면서 증거는 ‘빈손’... 쳇바퀴 돈 70차례 재판

##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 1 혐의와 증거

1심 경영권승계 뇌물·상장 특혜 등 증거 제시 못하고 의심수준서 그쳐 2심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특혜도 혐의 입증 못하고 공소장만 고쳐

‘세기의 재판’이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월 5일로 예정됐다. 2017년 1월 16일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며 재판을 예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있었던 70차례의 재판 과정을 5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판결만을 남겼다. 사진은 이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검검사. /연합뉴스

어려면 주가가 낮게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공모가 13만6000원에 시가총액 9조원 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주당 41만6000원, 시가총액 27조5246억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상위 9위에 올랐다. 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커 나스닥이 아닌 코스피로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한국거래소 관계자 증언에 부합하는 결과다.

재판 도중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재판마다 달라진다”며 “주가가 계속 오르는 모양”이라고 말을 흐리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승계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2심에서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나 특혜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공소장을 고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1심에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판결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단순 뇌물죄’를 추가했고, 단순 뇌물죄로 기소했던 승마지원에는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다. 1심에서 확인된 3차례 독대에서 부정청탁이 확인되지 않자 그 독대에 앞서서 ‘0차 독대’를 만들었다. 다만 독대에서 나는 대화는 물론 실제 독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상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까지 1심 53차례, 2심 17차례로 총 70번의 재판이 열렸다.

1심과 2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이라는 뇌물을 제공했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협조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처분 주식 감량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지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병원 특혜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의 혜택은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씨에게

돌아갔으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의 ‘뒷배’를 보겠다는 논리다.

또한 삼성이 받은 특혜들은 이견희 삼성 회장의 뒤를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검은 1심 공판에서 “삼성으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였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강하게 형성됐다.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2심에서도 박 특검은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

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의 강경한 발언과 달리 재판에서는 이러한 혐의들이 입증되지 않았다.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특검이 의심 수준을 넘어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특혜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대표적으로, 특검의 주장대로만 금융지주로 전환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전환에 실패했다.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청탁 때문에 규정까지 개선하며 코스피에 상장시켰다는 특검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

## 美 ‘이란 제재면제’ 연장... 코트라 “韓 기업 한숨돌려”

단기적으로 악영향 크지 않을 듯 트럼프 이번 인증 ‘마지막’ 공언 대대적 수정에 맞설 대비책 필요

이란에 진출해 있거나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JCPOA) 인증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인증이 ‘마지막’이라고 공언하고, 향후 대대적인 수정을 조건으로 내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코트라(KOTRA)는 14일 펴낸 ‘이란 핵합의 현황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 JCPOA 진행 경과

2015.07.14	합의 확정일 ‘P5+1*’-이란 핵합상 최종 타결
2015.10.18	합의 채택일 ‘P5+1*’-이란간 법적·행정적 준비 및 JCPOA 합의 이행
2016.01.16	합의 이행일 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이행사항 확인
*이란 제재해제 관련 UN안보리 결의안 효력 발생	
*미국과 EU는 이란 제재 유예조치 시행, 대다수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허용	
2017.04.18·2017.07.17	핵합의 인증 미행정부 이란 핵합의 준수 인증, 의회 보고
2017.10.13	핵합의 불인증 미 트럼프 대통령 이란핵합상 불인증 선언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의 핵합의 조건부 인증 이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단기적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이 침착하게 비즈니스에 전념할 것

을 주문했다. KOTRA에 따르면 JCPOA는 2015년 7월 당시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포함한 6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합의로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위협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천명해 왔다. 이란 역시 자국이 먼저 JCPOA를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의 예상을 깨고 이번엔 이란 제재 유예조치 연장에 사인하면서 JCPOA는 당분간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유예 조건으로 JCPOA의 대폭적인 수정을 내건 만큼 앞으로 주요 당사국간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당장 120일 안에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핵합상 주제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 이란 현지에서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유예 결정에는 120일이라는 유효기간이 붙었다. 120일이 지나면 다시 면제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JCPOA 수정이 없을 땐 이것이 마지막 제재면제 연장임을 강조한 것이다.

KOTRA는 만약 120일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시킬 경우 우리 기업의 이란 비즈니스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재가 복원되면 그동안 급물살을 타온 각종 프로젝트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에 따라 추진된 각종 정유시설 및 플랜트 공사와 사우스파르스(South-Pars) 등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에 빠질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대림그룹 “순환출자 해소·일감몰아주기 근절”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쇄신안 발표 계열사 내부거래 점검 등 투명성 ↑



대림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경영쇄신 계획’을 내놨다.

대림그룹은 14일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순환출자 완전 해소(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림그룹은 이해육 부회장 등 개인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회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거래 단절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림은 올해부터는 신규 계열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령상 허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계열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계열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단절하거나 외부 사례를 참고해 거래 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거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외부업체·중소기업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육 부회장 등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도 상반기 내 법적 검토를 거쳐 처분방식 등을 결정해 정리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계열사 내에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공식화한다. 내부거래위원회에는 보고 청취권, 직권 조사 명령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림그룹은 그룹 내 순환출자를 올해 1분기 내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림그룹지배구조에는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순환출자구조가 있다.

대림그룹은 “해당 순환출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는 않지만 대림그룹은 기존 순환출자를 선제적으로 완전 해소해 보다 투명하고 단순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림은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2%를 처분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 리튬배터리 내장형 ‘스마트가방’ 운송제한

대한항공 오늘 출발 항공편부터 기내휴대수하물 반입으로도 불가



최근 항공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항공 운송이 일부 제한된다. 스마트 수하물가방이란 리튬배터리를 내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한 위치 추적, 캐리어 무게 측정, 전동 이동, 자동 잠금, 충전 등의 편의 기능을 갖춘 가방이다.

대한항공은 15일 출발 항공편부터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모델을 위탁 수하물로 탑승하거나 기내에 휴대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모두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가 가능한 모델의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위탁 수하물 탑승이 가능하다. 분리한 리튬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만약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휴대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스마트 수하물 가방과 관련해 내부의 리튬배터리로 인해 과열이나 발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규정 추가에 따른 것이다. /양성문 기자 ysw@

# ‘코스닥 활성화’ 정부 의지에 기관 매수... 1000돌파 무난

## 코스닥 랠리

〈上〉 코스닥 새 역사... 수급 개선

정부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연중 최고치 1000p 넘을 듯  
“바이오주 조정 염두” 우려도

코스닥시장이 연일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코스닥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중이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분석해 본다. 또 과거 닷컴버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코스닥지수가 최근 9거래일 동안 9.3%나 급등했다. 정부의 확고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의지가 코스닥 주가를 끌어 올렸다는 평가다. 다만 바이오주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해 코스닥 ‘버블’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12일 오후 서울 을지로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코스닥 지수 그래프가 급등락을 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0.54포인트(2.41%) 오른 873.05로 장을 마쳤다. 지수 증가가 870을 넘는 것은 2002년 4월 18일(876.80)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역대 최대인 309조3000억원을 달성했다.

◆수급 활성화 대책에 코스닥 ‘방긋’  
코스닥 상승세의 요인은 단연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다. 지난 연말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

지며 주가에 기대가 실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해 침체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연기금에게 코스닥 차익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 준다. 또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되고 소외된 코스닥 상장사에도 기관의 자금이 들어가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2월에는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내놓

고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개발한다.

서보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은 코스닥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2월 통합지수와 6월 중소형주지수 개발의 수급효과는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이벤트다”고 말했다.

◆‘주가 오른다’에 베팅... ‘버블 우려’ 여전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과 전망이 쏟아지면서 지난 12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은 역대 최대치인 12조84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1일 기록한 역대 최대 거래대금(10조322억원)보다 20% 이상 많은 것이다. 투자자들의 통 큰 베팅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정부 규제가 본격화하자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생되기도 했다. 코스닥150지수 선물 가격이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 현물 가격이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됐기 때문이다. 지수 급등으로 매수호가 효력을 정지시킨 사이드카는 2009년 5월 26일 이후 약 8년 7개월 만이다. 투자자들이 어느때보다 코스닥의 상승세를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올해 코스닥 연중 최고치는 무난히 90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증권은 연내 1000 돌파를 예상했다.

다만 바이오주의 과도한 상승으로 ‘주가 버블’이 커지고 있다는 경계감은 여전하다. 한 달 전 20만원이었던 셀트리온 주가는 이달 12일 34만1500원까지 올랐다. 한 달 새 63.0% 오른 것. 코스닥 시총 2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같은 기간 9만4000원에서 14만8100원으로 57.6% 올랐으며, 시총 3위 신라젠은 16.8% 상승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인 바이오주들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코스닥은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장세”라며 “투자에 앞서 바이오주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월드컵·올림픽 특수... 文 집권 2년차 증시도 호황?

역대 올림픽 ‘코스피 수익’ 동반자  
월드컵 기간 수혜주도 나타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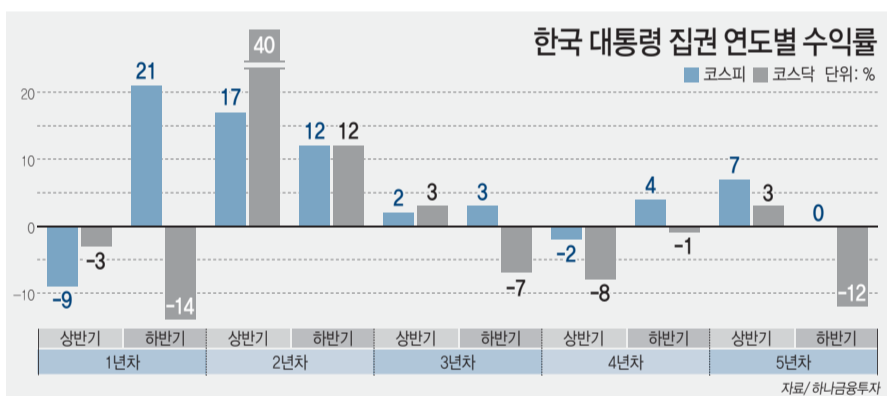
“역사 그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운을 갖고 있다(History does'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me).”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가 큰 영향을 주곤 한다. 올해는 문재인 집권의 집권 2년차.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 월드컵 등 큰 이슈가 있다. 과거 경험상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들이다.

전문가들은 “심리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는 주식투자에서 역사를 통해 지혜를 깨우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집권 2년차 상반기 코스피 수익률 17%  
새 대통령의 탄생은 주식시장에서도 주요 재료다. 경제 주체의 하나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4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은 역대 대통령(15대 김대중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차 상반기에 평균 17%(코스피지수 기준) 상승했다. 하반기 상승률(12%)보다 높다. 3년



차엔 2~3%, 4년차엔 -2~4%로 2년차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코스닥시장은 집권 2년차 상반기 평균 주가상승률이 40%에 달했다. 하반기엔 평균 12% 올랐다.

하나금융투자는 새 정부 출범 1년차에 경제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뒤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을 실행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집권 2년차를 맞는 1월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정부 정책의 영향력이 높다. 성장 정책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면서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높은 정부 정책으로 ▲중소 벤처 기업 및 코스닥 활성화 정책 ▲4차 산업

혁명 대응 방안 ▲한중 관계 회복 노력 등을 꼽았다.

◆동계올림픽, 코스피와 ‘동반자’ 관계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은 지구촌 대형 스포츠 축제다. 개최국은 물론 참가국들도 성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

올해 평창올림픽은 한국에서 열린다. 북핵 위험 등 전쟁 위험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역대 올림픽 개최국(하계올림픽 기준)을 보면 개최 1년 전과 개최 기간, 개최 1년 후 증시 등락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는 올림픽 개최 1년 전인 1987년 38.2%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개최 기간에는 9.4% 하락했다. 개

최 1년 후 증시는 13.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베이징올림픽 개최 1년 전 증시 수익률은 -41.4%였지만 개최 기간 -11.8%로 회복세를 보였고 1년 후에는 23.1%까지 치솟았다. 개최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올림픽 효과는 천차만별이란 얘기다.

그리스는 2004년 올림픽을 개최하며 과도한 지출로 아테네시에 상당한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

다만 올림픽만 놓고 보면 코스피 수익률은 ‘동반자’ 관계라 할 만 하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코스피가 오른 경우가 많아서다. 이런 경향은 1990년 이후 네차례나 이어졌다.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11.05%),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10.51%),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9.38%), 2016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3.32%) 등이 열린 해에 모두 상승했다.

반면 1996년 말 코스피는 전년 말보다 26% 하락했다. 시드니올림픽이 개최된 2000년 코스피는 전년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베이징올림픽이 열린 2008년에는 40%나 하락했다.

동계올림픽은 어떨까. 90년대 이후 7번의 올림픽이 열렸고, 이중 4번이 올랐다.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94년

코스피는 18.61%나 올랐다.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18.61%),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3.99%),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21.88%) 등이 열린 해에도 코스피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국가대표팀 발 끝에서 나올 경제적 효과는?

오는 6월 러시아월드컵이 열린다. 월드컵이 열리면 전 세계에 공보다 돈이 더 많이 굴러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인원 400여명이 TV 앞에 앉아있는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큰돈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가 전날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를 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일 월드컵은 투자·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4조원, 국가 브랜드 홍보 7조7000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 14조7600억원 등 모두 26조4600억원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도 경기장 건설 등의 효과 덕분에 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대회 공식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한국이 4강진화를 펼친 덕에 현대차는 6조~7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이미지 효과를 거뒀다.

월드컵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회기간 주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독 월드컵만 되면 빛을 보는 수혜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김민호 기자 kmh@

## 고금리·고원화·고유가 ‘3高’시대... 올 성장률 3% 상향?

한은 금통위 18일 개최

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연 3%대로 끌어 올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2018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연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주열 총재는 이달 초 신년 다과회에서 “올해 연 3% 언저리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3%대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계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

면서 한국경제의 수출 호조세도 이어갈 것으로 봤다. 또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이 점차 완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순풍’이 불 것으로 예측했다.

내달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어드는 등 완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한국경제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490억7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이 최근 전국 제조업체 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는 올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세계은행(WB)은 최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7%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9%로 유지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최근의 수출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인상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 원화 가치 강세(고원화)에 더불어 유가가 고점(고유가)을 찍는 등 ‘3고(高)’가 예상되는 등 하방 압력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임에 따라 건설투자 시장이 침체되면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제약될 것으로 봤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연 2.9% 등 2%대 후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동결이 전망된다. 지난해 마지막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연속된 금리 인상에 따른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5G 시작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치열한 선두 경쟁에서 압도적 스타트로 확실하게 리드하는 그녀처럼  
전 세계 5G 경쟁에서도 대한민국이 압도적 선두가 되도록

**KT가 5G 네트워크로 세계 최초 5G를 시작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세계 최초 5G 시범 네트워크] [세계 최초 5G 시범 단말기 시연 예정]

# 생활에 스며든 AI·IoT... '스마트시티의 미래' 엿보다

CES 2018 결산

관람객 20만명... 역대 최고 수준  
 지난해 이어 '중국의 굴기' 재확인  
 CTA의 미숙한 운영은 오점으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소비자가전쇼(CES) 2018'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CES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로봇 등 신기술과 함께하는 미래 생활상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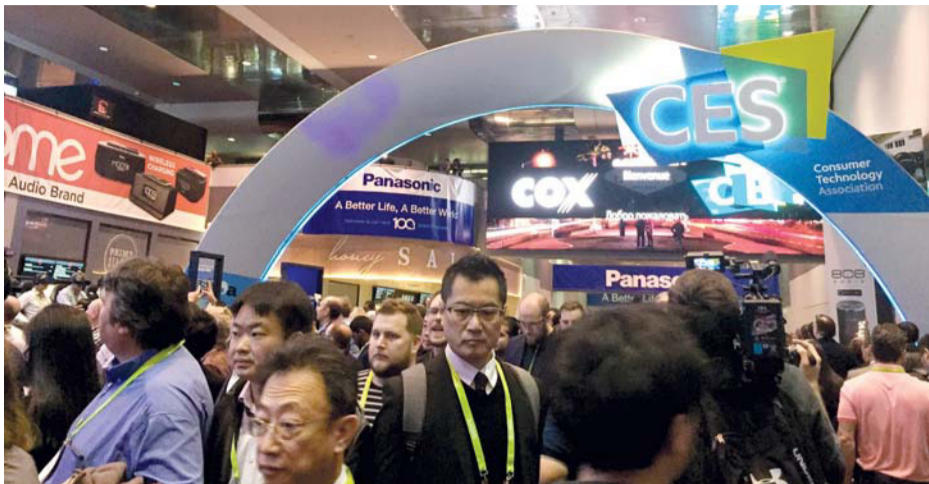
하지만 첨단 IT 기술의 경연장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올해 CES는 누수와 정전 사태 등으로 일부 기업의 전시가 중단되는 등 주최측인 소비자기술협회(CTA)의 미숙한 운영이 오점으로 남았다.

### ◆삼성·LG·현대차 활약 돋보여

CTA에 따르면 이번 CES에는 전 세계 150여개 국에서 4000여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관람객은 20만명에 이른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핵심 트렌드를 'AI에 기반한 연결성'으로 정의하고, 자체 AI 플랫폼 '빅스비(Bixby)'를 가전에서 전자기기까지 전사적으로 적용하고 연결된 IoT 기기들을 '스마트싱스 앱' 하나로 간단하게 연동·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들은 이번 CES 전시장에서 빅스비를 중심으로 삼성의 혁신 기술이 자사의 모바일·스마트 TV·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물론 제3자 기기와 앱을 어떻게 연동하고 제어하는지 상황별로 경험할 수 있었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소비자가전쇼(CES) 2018'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전시장이 전시 참여업체 관계자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왼쪽)삼성전자 내 전시장에서 전시 관계자들이 하만이 공동개발한 '디지털 콕핏'을 CES2018에서 시연하고 있다.



전시장이 전시 참여업체 관계자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왼쪽)삼성전자 내 전시장에서 전시 관계자들이 하만이 공동개발한 '디지털 콕핏'을 CES2018에서 시연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또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마이크로 LED 기술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모듈러 TV '더 월'에는 관람객이 몰리기도 했다.

LG전자는 CES 전시관 내 자체 부스의 1/3 이상을 AI 브랜드인 '씽큐(ThinQ)'로 채웠다. 씽큐군은 거실, 주방, 세탁실 등 소비자가 실제 생활하는 공간으로 연출했다. 관람객들은 세탁실에선 음성인식으로 트윈워시를 비롯해 건조기, 스타일러 등이 서로 연동해 의류를 관리하는 모습을 주방에선 음성인식 냉장고와 오븐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에 맞춰 요리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며 AI와 IoT로 변모할 가정 내 모습이 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AI를 탑재한 'LG 올레드 TV 씽큐'와 'LG 슈퍼 울트라HD TV 씽큐' 등 TV 라인업도 공개했다. LG의 독자 AI 플랫폼인 딥씽큐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해 TV는 물론 다른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모습으로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CES에서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NEXO)의 차명과 제

원, 주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넥쏘는 차세대 동력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기술이 적용됐으며, 5분 이내의 충전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590km 이상(인증 전)의 항속거리를 구현한다. 전시장에서 넥쏘의 엔진 등 내부가 공개돼 있어 이를 보려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또한 오로라와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현대차그룹-오로라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오로라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2021년까지 3년 내 업계가 도달할 수 있는 레벨4(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스마트시티 내에서 우선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 ◆AI·자율주행·로봇 시대가 눈앞에

이번 CES는 구글, 아마존, LG 등 AI 플랫폼 경쟁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구글은 라스베이거스는 물론 전시장 곳곳에 구글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구동하게 하는 명령어 '헤이 구글'이라는 문구를 이용해 대대적으로 광고와

이벤트를 열었다. 이벤트 행사장에는 이를 참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아마존은 전시장에 자사의 AI 플랫폼 '알렉사'로 연결된 '아마존 디바이스' 부스를 마련했다. 전구·플러그부터 로봇청소기·커피메이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와 협업한 제품들로 알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관계자는 "약 2만5000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알렉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CES에서 공개된 자율주행 기술은 5G를 기반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도요타가 선보인 박스 모양의 차세대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이팔레트'(e-Palette)는 음식 배달부터 물건 판매, 차량공유 등까지 용도에 맞춰 제작, 활용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새로운 전기컨셉카와 A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전시했다. 또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는 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 2.0'을 공개했다.

로봇은 이번 CES에서 중심의 한 축이

었다. 관람객의 귀여움을 차지한 소니의 애완견 로봇 '아이보', 혼다의 감정인식 로봇 '3E 로보틱스'(3E Robotics)를 비롯해 협동로봇, 교육용로봇까지 다양한 로봇이 주목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중국의 굴기'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CES에 참여한 중국 기업은 전체 참가 기업의 1/3 넘는 1379개에 이른다. 스마트폰 기업인 화웨이를 비롯해 하이얼·하이센스·TCL·창홍·스카이웍스 등 가전업체, 최대 검색 업체 바이두, 드론의 DJI, 전기차 스타트업 '퓨처 모빌리티'는 등이 다양한 전시제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CTA의 미숙한 운영은 이번 CES의 가장 큰 오점이었다. 개막일인 9일에는 쏟아진 비에 전장 곳곳에서 비가 새면서 삼성전자 등 일부 전시장 내에 빗물 받는 통을 설치했으며, CES에 처음 참가한 구글은 전시장 오픈을 하루 미루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0일에는 일부 전시장에 정전 사태로 두 시간 가까이 출입이 통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un@

## 은행, 올 中企 대출 크게 늘릴 듯

둔화 우려에도 견고한 4~5% 성장률  
 정책적 지원에 中企중심 성장 가속화

올해 은행 대출 성장률이 중소기업대출 성장에 힘입어 견조할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정책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기존 담보대출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대출 상품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4분기 프리뷰(Preview)-2018년 이익 개선 가능성 확인 기대' 보고서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은행 대출 성장률은 4~5%의 견조한 수준을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의 대출 성장 중심이 중소기업 대출로 이동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정책 기조에 의한 정책적 지원이 이런 중소기업중심 성장을 가속할 것이라 이유에서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중심의 성장 및 이에 따른 은행 간 성장 차별화도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높은 자본 비율의 대형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중심 성장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도 "자본비율이 낮은 은행들은 RWA(위험가중자산)관리 필요성에 의해 낮은 가중치의 가계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KB·신한·하나 등 3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3분기까지 연초 대비 8.3%의 중소기업대출 중심 성

〈예금은행 대출 성장률〉 (전분기대비, %)

	4Q16	1Q17	2Q17	3Q17	4Q17
가계대출	2.9	0.8	2.4	2.5	2.3
주택담보	2.9	1.0	2.1	2.0	1.6
가계일반	2.7	0.2	3.3	3.8	4.5
기업대출	(1.0)	1.8	0.7	1.9	0.3
대기업	(5.7)	2.1	(3.3)	0.4	(2.4)
중소기업	0.3	1.7	1.8	2.3	1.0
총 대출	0.8	1.3	1.5	2.2	1.3

참고: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자료=한국은행, 삼성증권 추정

장을 보인 반면, 자본비율이 낮은 BNK·JB금융의 성장의 축이 여전히 가계대출에 머물렀다.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중심의 성장은 NIM(순이자마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은행 NIM은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대출 구성의 변화로도 개선될 수 있다"며 "작년부터 은행들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대안이자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인해 중소기업대출 증가 속도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주담대에 비해 크게 높은 만큼 중소기업대출 비중 상승은 대출 전체의 가중평균 금리를 높여주게 되고, 이는 NIM 상승 압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금리 상승도 추가 NIM 회복을 가능케 해 전체적으로 은행들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책적·경쟁적 요인에 따른 중소기업대출의 과도한 가산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신동빈,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성화봉송'

〈롯데그룹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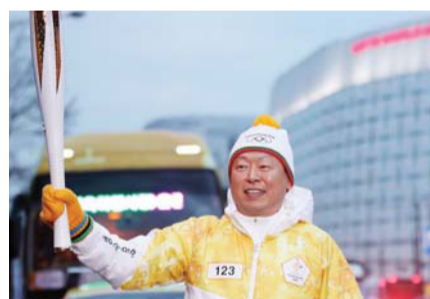
10대 그룹 회장 중에서 첫 주자  
 잠실 일대 '올림픽 홍보존' 조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회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다.

신 회장은 14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약 200m 구간을 성화봉송 주자로 달렸다.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 회장은 스키를 비롯한 동계 스포츠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이날 신 회장이 성화봉송 주자로 달리는 잠실 일대는 롯데에 의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존'으로 조성됐다.

지난달 10일부터 롯데는 평창동계올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서울 둘째날인 14일 오후 성화주자로 나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원에서 성화봉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픽조직원위원회와 함께 국내 초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모두 2만6000개의 LED 조명을 활용해 평창 평화 불꽃을 밝힌 바 있다. 건물 외벽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모습, 응

원 문구와 스카·스케이트 등 경기 모습 등을 연출하고 있다.

롯데는 자체 유통시설 전체를 홍보 매체로 활용하기 위해 잠실 일대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존으로 만들었다.

전국의 롯데백화점 점포를 평창동계올림픽 콘셉트로 구성하고, 백화점과 면세점 등 영업장에 올림픽 홍보부스와 포토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대한스키협회장에 취임한 신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스키협회에 2020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스위스 오버호펜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지앙 프랑코 카스파 회장, 사라 루이스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평창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삼성전자, 모듈러 TV '더 월' 41개 상 휩쓸어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에서 선보인 마이크로 LED 기술 기반의 세계 최초 모듈러 TV '더 월'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

삼성전자는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36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으며, 매년 글로벌 유력 매체들이 CES 전시제품 중에 선정해 수여하는 상 80개까지 총 116개 CES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마이크로LED 기술 기반의 세계 최초 모듈러 TV인 146인치형 '더 월(The Wall)'은 'CES 혁신상'을 포함해 무려 41개의 상을 휩쓸었다.

더 월은 USA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WSJ), IT전문매체 BGR 등으로부터 'CES 최고상'을 받아 단일 제품으로는 최다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강화된 '패밀리허브 냉장고'와 360도 회전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노트북 펜(PEN),



CES 2018 기간에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삼성전자 부스에 전시된 세계 최초 모듈러 TV '더 월'. /삼성전자

8K 화질에 AI 기술이 탑재된 새 QLED TV, 신개념 디지털 플립차트 '삼성 플립' 등도 여러 개의 상을 받았다. /정은미 기자



### 삼성전자, 美 가전시장 ‘부동의 1위’ 비결은

# “냉장고 터치하니 조리법에 음악까지… 슈퍼 그웨잇”

Q 르포 | 美 라스베이거스 ‘베스트바이’ 매장에 가보니

“냉장고 터치스크린에서 조리법을 알려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게 마음에 든다. 아이가 냉장고 스크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 위치한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만난 5살 딸과 2살 아들을 둔 한 가족은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을 연신 두드리고 신기해하며 이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베스트바이는 미국 내 전자제품 유통업 1위 업체다.

베스트바이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날 만난 가족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한 소비자의 반응 대부분은 비슷하다.

베스트바이의 한 직원은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터치스크린으로 내부 모습을 보여주면 손님들이 깜짝 놀란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박영민 가전담당은 “미국 시장 진출 20년도 안 된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제품 혁신과 현지식 맞춤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며 “미국 시장에서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위주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체험위주의 사업으로 차별점 뒤 오픈하우스서 직접 시뮬레이션 사물인터넷 리더십 주도 평가도 세탁기도 5분기 연속 성장 지속

대표적인 서비스가 ‘삼성 오픈하우스’다. 삼성전자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베스트바이 미국 내 300개 매장에 마련된 삼성 오픈하우스는 85인치 초대형 터치스크린에서 매장 내에 전시하지 못하는 제품을 실물 크기로 주요 기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베스트바이의 또 다른 직원은 “삼성 오픈하우스에서 실물과 함께 주요 기능을 직접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베스트바이 매장에 전시된 가스레인지와 오븐 일체형 제품도 미국 식습관에 맞춰 개발된 제품이다. 오븐을 많이 사용하는 미국 식습관에 맞춰 하나로 돼 있는 다른 회사 오픈과 달리 공간을 위아래 2칸으로 나눠 활용도를 높였다.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만난 5살 딸과 2살 아들을 둔 한 가족은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냉장고 터치스크린을 연신 두드리며 신기해하고 있다.

박영민 가전담당은 “고온으로 가열해야 하는 요리와 상대적으로 저온이 필요한 디지털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현지 식생활에 맞춘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백색 가전일색인 미국 가전제품에 블랙스테인리스를 새롭게 적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북미에서 컬러 마케팅 붐이 일기도 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내 위치한 베스트바이 매장 중앙에 삼성전자 TV가 전시돼 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노력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패밀리허브는 지난 2016년 출시 이후 사물인터넷(IoT) 리더십을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매출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2.7배 증가했다. 올해는 6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드워시와 플렉스워시 등을 대표로 하는 세탁기의 경우 지난해 3분기 20%의 점유율로, 5분기 연속 1위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4년 11.8%, 2015년 15.0%, 2016년 18.7%에 이어 2017년 19.6%(3분기 누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가전 시장에서 다양

한 혁신 제품과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지난해 3분기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6분기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박영민 담당은 “미국 가전시장은 소비자 취향도 까다롭고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제품의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30~4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이러한 소비자 변화에 맞춰 제품 혁신과 차별화, 현지화로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룰 메이커’가 돼 미래시장을 견인하라”

LS산전 구자균 회장, 진급자들에 당부 행복한 가정·건강한 조직 밸런스 강조

LS산전 구자균 회장이 과장 진급자와 가족을 함께 초청한 승진 축하행사 자리에서 과장 진급자들에게 ‘룰 테이커(Rule Taker)’에 그치지 말고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나 회사의 미래를 주도하는 관리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LS산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올해 신입 과장과 배우자 가족 등 170명을 초청해 승진을 함께 축하하는 ‘스마트 워킹, 해피 라이프’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구자균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올해로 8회를 맞은 이 행사에는 안양 본사와 연구소를 비롯해 전 사업장 과장 승진자는 물론 CEO인 구 회장, 박용상 사업총괄 부사장, 남기원 관리총괄 부사장 등 주요 임원 역시 부부동반으로 참석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각 사업부부장 내외와 함께 승진 대상자 소속 팀장도 전원 참



구자균 LS산전 회장(가운데)이 신임 과장 및 그 배우자와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LS산전

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과장을 의미하는) 영단어 ‘매니저’는 고삐를 쥐고 몸집이 큰 말을 자유자재로 다스린다는 뜻”이라며 “과장은 스스로 업무의 고삐를 쥐고 관리와 동시에 책임을 지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도 특별히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본격적인 성장 시대 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

점에서 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과장들이 ‘룰 테이커’를 넘어 ‘룰 메이커’로서 활약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 회장은 “기존 관습·관행에서 탈피해야 새로운 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해진 틀 속에서 이를 준수하는 룰 테이커에 그치지 말고, 때로는 격렬히 프레임에 거부하는 룰 브레이커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발상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건과 룰을 바꿔 나가는 룰 메이커도 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룰을 깨트리고, 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룰 메이커이며 이들은 회사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견인한다”며 “올해 승진한 여러분들이 파괴적 혁신자로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승진 자체로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지만,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휴식이 건실한 자아를 만들고 더 나아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기자 sesung@

## 신격호 총괄회장, 롯데월드타워로 이사

롯데그룹 ‘소공동 시대’ 마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국내 최고 건물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거처를 옮긴다.

아들인 신동빈 회장과 롯데지주 임직원 등은 지난해 하반기에 사무실을 롯데월드타워로 옮겼다.

이번에 신 총괄회장까지 잠실로 이주하면 롯데그룹의 40년에 걸친 ‘소공동 시대’가 마감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14일 “총괄회장이 이달 16~17일쯤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이사한다”며 “정확한 날짜는 한정후견인 측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1978년 3월 ‘소공동 시대’를 열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거주하며 업무를 봤다.

최근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로 롯데월드타워가 적합하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신 총괄회장은 롯데월드타워로 옮기게 됐다.

신 총괄회장의 거처는 롯데월드타워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량·배임·탈세’ 등 경범죄처벌법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9층 고급 레지던스형 공간이다.

당초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108~114층에 위치한 최고급 오피스텔인 ‘프리미어 7’에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인테리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거주지를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변경했다.

이 곳에는 신 총괄회장의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한정후견인과 간병인, 경호원이 머물 공간도 같은 층에 들어선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LG의 차세대 車 부품 기술력… ‘북미’서 뽐낸다

글로벌 모터쇼 ‘NAIAS’ 참석

LG전자가 오는 28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018 북미 국제 오토쇼(NAIAS)’에서 차세대 자동차 부품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북경 모터쇼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이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등 글로벌 모터쇼에 참가하

고 있다.

LG전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가, 전시회 기간 중 이날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핵심 부품을 전시하는 비공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주제는 LG전자가 글로벌 전시 행사에서 일관되게 소개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파트너’다.

LG전자는 ▲구동모터, 인버터 등 전기차 구동 솔루션 ▲전동 컴프레서, 배터리를 히터 등 전기차 공조 솔루션 ▲AV 내비게이션, 중앙디스플레이장치 및 LCD 계기판 등 인포테인먼트 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전시한다.

LG화학도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배터리팩 등을 선보인다. /정은미 기자



LG전자 직원이 부스에 전시된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소개하는 모습. /LG전자

# 두려운 '눈길 운전'... 겨울철 드라이빙교육 '눈길' 타이어만 바뀌어도 안전하게 썸썸

## | 체험기 | BMW 윈터 드라이빙

총 120분 겨울철 안전운행 위한 이론·실전 드라이빙 프로그램

다양한 코스서 일반·썸머 타이어 성능 비교 가능... 차이점 뚜렷해



눈길 위에서 스노우 베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3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운전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도로 위 운전은 두려움이 앞선다.

눈이 깔린 도로는 운전자들이 평소 접하지도 못할 뿐더러 조작도 쉽지 않다. 눈길에서 차가 의도한대로 움직이지 않고 밀리면서 회전하면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다. 눈길 운전의 두려움을 없애고 위험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주 접하고 경험을 쌓는게 가장 좋다.

이에 BMW 드라이빙센터(인천 영종도)에서 겨울 시즌 동안 진행하고 있는 안전운전교육 '스노우 베이직'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봤다. 2014년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총 120분으로 구성됐다. 눈길에서 다양한 코스를 적용해 운전자가 직접 보고·듣고·느낄 수 있다.

### ◆눈길 주행 '겨울철 타이어' 필수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20분의 안전 이론 교육 후 60분 동안 다목적 코스에서 일반·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의 가속·제동 성능을 비교 체험할 수 있다. 30분 가량의 윈 선회 코스에서는 DSC(Dynam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을 완전히 제한해 다이내믹한 눈길 주행도 경험할 수 있다. 예약만 하면 BMW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론 교육에서 차량 제동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속 60km로 주행 중인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정차까지 제동 거리는 28.7m다. 눈길에서는 63.7m이며 빙판길에서는 158.7m에 달한다.

이후 후륜구동에 겨울철(윈터) 타이어(한국타이어 아이셉트 예보2)를 장착한 BMW 330i M 스포츠패키지에

답습해 다목적 코스로 이동했다.

윈터 타이어는 빙판길에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말랑말랑한 재질의 고무 성분과 트레드(노면과 닿는 타이어 표면)의 홈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눈길에서 윈터 타이어와 썸머 타이어의 차이는 확인했다. 다만 윈터 타이어는 마른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고속 주행시 제한 속도(최고 180km/h)도 있다.

실제로, 썸머 타이어가 장착된 430i(330i와 유사 스펙)를 타고 같은 코스를 주행했지만 타이어 앞바퀴 방향을 11자로 유지해도 타이어가 눈길에 헛돌면서 속도를 높이는게 힘들었다.

DSC 장치를 끄자 차량 컨트롤은 생각할 수 없었다. 바퀴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스티어링 휠 조작도 의미가 없었다. 또 스티어링 휠의 방향을 조금만 돌려도 눈길에서 미끄러져 제동이 쉽지 않았다.

반면 윈터 타이어와 사륜구동을 동시에 적용하자 눈길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었다. BMW xDrive에 윈터 타이어가 장착된 차량으로 눈길 코스를 주행하자 같은 도로 상황임에도 미끄러짐이 적어 바퀴가 헛돌거나 가속에 주춤 없이 주행이 가능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윈터 타이어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3월 사이에 사용을 권장한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윈터 타이어는 겨울에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다. 업체들이 제공하는 타이어 보관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

도 현명한 방법이다.

### ◆운전 자세 꼼꼼히 체크

운전자가 주행 중 고속주행 및 다양한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전 자세가 중요하다. 드라이빙 교육을 받을 때 차에 올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트 포지션의 조절이다. 시트 높이는 머리 위로 손가락 네 개 가량 들어갈 정도여야 한다. 그래야 멀리 볼 수 있다. 너무 높으면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향해 상대적으로 시야가 좁아진다.

시트와 페달까지의 간격도 잘 조정해야 한다.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굽혀진 자세여야 한다. 너무 펴져 있으면 페달에서 발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 사고 시 바로 골절로 이어진다. 무릎이 굽혀져 있어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운전대를 잡을 때는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한다. 한 손만으로 핸들 윗쪽을 잡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얼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팔꿈치는 약간 굽혀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눈길에서는 핸들링 양이 평소보다 많아져 몸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트 각도를 조금 더 세우고 팔꿈치를 굽혀야 핸들링을 보다 가볍게 할 수 있다. 헤드레스트 높이는 사고 시 경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 중앙이 헤드레스트 중앙과 일치하게 조절해야 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사과같지 않은 사과라도 좋아요" 배터리논란에도 애플 충성 여전?

대리점엔 아이폰 구매자로 복직 마니아층 많아 매출에 영향 없어 중고 아이폰 매입단가는 낮아져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아이폰X'를 살펴보는 소비자들. /정연우 인턴기자

"애플은 끄떡없습니다. '애플'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아직 상당하거든요."

애플이 아이폰6와 6S의 성능을 이용자 몰래 떨어뜨린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의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들은 애플의 '아이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같이 전했다.

지난 11일에는 애플 배터리 게이트 사태 이후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지만, 일명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아이폰 충성고객은 여전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150명이 참여했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 등을 합쳐 1인당 220만 원으로 산정됐다.

같은 날 찾은 서울 광화문역 부근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는 휴대전화 프로모션 행사로 아이폰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여전히 북적였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아이폰X(텐)'을 살펴보고 있던 대학생 김모(여·24)씨는 "아이폰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아이폰9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X'는 배터리 게이트에도 지난달만 300여대가 팔렸다"며 "아이폰은 워낙 마니아 층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게이트가 사실상 매출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화로 대리점에 문의하는 고객이 몇 분 있었지만 큰 문제제기는 없었다"고도 전했다.

애플 아이폰의 고의 성능저하 파문에도 아이폰의 제품 브랜드 이미지는 여전히 금이 가지 않은 셈이다. 실제 서울 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는 여전히 아이폰8, 아이폰X의 홍보물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배치돼 있다. 아이폰 마니아층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전반

적으로 20대~30대 젊은 층의 소비자들이 많았다.

평소 충성 고객이 많아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애플 아이폰의 기세가 뚜렷한 중고폰 시장에서는 중고 아이폰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기도 했다.

중고폰 전문업체 관계자는 "중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오히려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 저렴해져서 더 인기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 대책으로 배터리 교체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국내에서도 지난 2일부터 문제가 된 모델을 대상으로 배터리 교체를 시작하고 있다.

중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배터리나 부품 등을 교체해야 할 경우도 있다.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을 인하하면서 오히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중고 스마트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고 아이폰 매입단가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LG유플러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중고폰 매입단가'를 보면, 지난 4일 이후와 비교해 11일 기준으로 '아이폰6' 64기가바이트(GB) 모델은 매입단가가 14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아졌다. '아이폰7' 32GB 단말 역시 같은 기간 31만5000원에서 28만5000원으로 내려갔다.

한편,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 배터리 교체 대상 기종은 아이폰6,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 모델로, 10만원인 배터리 교체비용을 3만4000원으로 낮췄다. 배터리 교체는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할 수 있다.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애플 이용자들이 1억대 분량 배터리를 교체하면 애플은 2017년 순이익의 2.3%인 11억 1000만달러(약 1조1900억원)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나인 기자 정연우 인턴기자 silkni@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KT 황창규 회장이 5G 커넥티드카와 함께 성화봉송을 진행하고 있다. /KT

## 드론에 커넥티드카까지... KT '5G 성화봉송'

광화문광장서 세계 최초 진행 황창규 회장 성화봉송 주자로

KT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스페셜 성화봉송'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페셜 성화봉송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추구하는 5가지 목표인 문화·환경·평화

·경제·ICT 올림픽의 대표 지역으로 선정된 도시에서 각각의 테마에 맞춰 대한민국의 현재 가치와 미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다.

문화올림픽 대표 도시로 선정된 서울시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성화봉송 프리젠틱 파트너인 KT가 공동 주관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광화문에서 5G 커넥티드 카와 함께 성화를 이어 받았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발한 황창규 회장은 광화문광장 남단까지 성화를 이어 달렸다. 5G 커넥티드 카에 탑재한 성화봉송 부주자(운전자)는 5G 단말과 차량 외부에 설치한 가상현실(VR) 카메라로 황창규 회장의 성화봉송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광화문광장 일대 설치한 5G 네트워크를 거쳐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 스크린으로 전송됐다.

황 회장은 200m 정도를 달린 후 광화문광장 남단 왼편에서 KT그룹 신입사원들에게 성화를 전달했다. 올해 1월 KT그룹에 입사한 신입사원 남녀대표 2명이 앞에서 성화를 들고 뛰었으며, 나머지 신입사원 250명이 뒤에서 행렬을 만들었다. 이들은 손목에 착용한 LED 팔찌를 이용해 '2018'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KT그룹 신입사원들은 광화문광장 남단을 돌아 교보빌딩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5G 드론에 성화를 인계했다. 사람이 아닌 드론이 성화를 봉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세계 최초 드론 성화봉송을 위해 '5G 드론'을 개발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 드론 야간비행 승인을 받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 LG유플러스 "약정 남아도 위약금 없이 할인"

상당수 25% 요금 할인 받게 될 듯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약정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재약정 시 위약금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 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은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면 위약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만약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나 기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위약금 부담 때문에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타지 못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인 기자

# 조용병 “우수인재 육성 최선... 리더 행동수준 올려야”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2~13일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2018년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경영포럼에서 조용병 회장이 초청 강연을 듣고 있다.

## ‘그룹 경영리더 육성제도’ 시행 선포 지주·계열사에 경영리더육성팀 설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우수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그룹 경영리더 육성제도’ 시행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와 그룹사에 경영리더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주사에 신한문화리더십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12~13일 경기도 기흥 신한은행연수원에서 열린 ‘2018년 신한경영포럼’에 참석해 “인재 포트폴리오 혁신을 통해 그룹 핵심사업을 실행할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그룹 경영슬로건인 ‘더 높은 시선(視線), 창도(創導·창조+선도)하는 신한’에 대해 설명하고 “전략이 아무리 훌륭해도 기업문화가 마이너스이면 성과가 작아진다”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기업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

들의 행동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룹의 경영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선 ‘그룹 경영리더 육성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그룹경영리더십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작년 1월 개최된 신한경영포럼에서 신한의 리더가 갖춰야 할 지향점인 경영리더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지주회사와 그룹사가 공동으로 경영리더십에 근거한 그룹 경영리더 육성제도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이달 중 그룹사별 경영리더가 최초로 선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와 그룹사에 각각 ‘경영리더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리더 육성내용을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 CEO(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함께 경영리더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주회사에 ‘신한문화리더십센터’를 신설해 경영리더 직급별로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날 조 회장은 올해 경영 슬로건인 ‘2020 스마트 프로젝트’의 4대 전략 방향으로 ▲조화로운 성장

장을 통한 그룹가치 극대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디지털 신한으로 업그레이드 ▲신한 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7개 전략 과제로 미래 지속성장 견인, 글로벌 성과 창출 가시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 시대에 맞는 신한DNA 실현, 인재 포트폴리오 혁신, 원신한(One Shinhan) 실행력 제고,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 확장 등을 소개했다.

조 회장은 “올해 글로벌 성과 창출 가시화하기 위해 신규 진출 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회사(JV) 등 차별적인 방법론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디지털 특화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토대로 차별적 고객경험을 제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룹의 미래 성장 사업분야에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차별화하고,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체계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법정이율 5→3%로 인하땐 車보험료 인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변경 개정안 심사 일본,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결정

현행 연 5%의 법정이율(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이 연 3%로 인하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정이율은 대인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상실하게 된 소득으로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된다. 할인율이 인하되면 미래상실소득의 현재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데 이 경우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이 14일 발표한 ‘법정이율 인하는 손해보상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정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고 이를 3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심사되고 있다.

주요국은 이미 법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법정이율 인하와 함께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결정했다. 영국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개인 상해 및 중상해 사고 소송에 적용하는 게리 표의 할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할인율 인하로 인한 자동차보험 등 관련

보험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보험사들은 최근 지급된 자동차보험금을 인하된 할인율로 재평가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추정해 법정이율 인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와 같은 법정이율로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 지 검토하고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며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유연대 농협은행 부행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13일 인왕산 정상에서 2018년 손익목표 7800억원 달성에 기업투자금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농협은행

## NH농협은행 인왕산 정상서 ‘2018 사업추진 결의’

NH농협은행은 지난 13일 기업투자금융부문이 서울 종로구 인왕산 정상에 올라 ‘2018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연대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2018년 손익목표 7800억원 달성에 기업투자금융부문이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기업투자금융부문은 손익목표 달성을

위해 우량 안전자산 확대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적 투자 및 외국인 수익 다변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 부행장은 “좋은 기업은 기다려주지 않아 먼저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올 한해는 기업방문과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더욱 늘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 등과 동반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보험상품 텔레마케팅 때 ‘따발총’ 설명 막는다

## 금감원, TM판매 프로세스 점검·개선

앞으로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해야 한다. 보장 내용은 천천히 말하면서 불리한 사항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말하는 이른바 ‘따발총’ 설명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보험 청약철회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나며, 보험상품 설명대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TM 채널의 판매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TM 채널은 전화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지난 2016년 건수 기준으로 전체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6%에 달한다.

그러나 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2016년 TM 불완전판매 비율은 0.41%로 설계사 0.24% 대비 약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구조가 복잡한 상품 변액보험이나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권유 전에 보험안내 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기

## 〈세부과제별 추진 계획〉

추진 과제	시행시기(목표)	
① 소비자 중심의 판매관행 확립	1-1. 보험가입 권유 전 보험안내자료 제공	'18.3/4분기
	1-2. 과도한 보장안내 제한	'18.2/4분기
	1-3. 설명음성의 강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18.2/4분기
	1-4. 상품내용 이해여부에 관한 확인방식 개선	'18.3/4분기
	1-5. 녹취내용 확인 안내 개선	'18.2/4분기
② 고령자 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2-1. 고령자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 연장	'18.3/4분기
	2-2. 고령자 맞춤형 보험안내자료 제공	'18.3/4분기
	2-3. 고령자 계약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강화	'18.3/4분기
③ 보험상품 설명대본 작성기준 마련 등	3-1. 보험상품 설명대본 작성기준 마련	'18.2/4분기
	3-2. TM설계사에 대한 교육 강화	'18.2/4분기

／자료=금융감독원

존 ‘듣기만 하는 방식’에서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바뀌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해 불안전판매를 예방토록 한다. 고(高)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TM 설계사의 과도한 보장안내 등도 제한한다.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늘리고, 보험가입을 권유하기 전에 큰 글자 및 도화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내야 한다.

또 고령자가 비대면 거래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고려해 보험사는 모니터링 대상 계약 중 30% 이상을 고령자 보험계약에 배정해야 한다.

TM 상품별로 설명대본을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업계공통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각 보험회사가 임의로 작성함에 따라 상품내용에 대한 오인 유발 등 TM 채널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규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

# “무이자 할부 ‘마일리지 적립’ 확인하세요”



## 대학등록금·국세 등 할인·적립 제외

Q: 지난해 높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주로 대형마트 등에서 무이자할부를 이용해 생필품을 구입했습니다. 연말에 카드 마일리지 얼마나 쌓였는지 조회해보니, 무이자할부로 결제해서 마일리지 적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카드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A: 카드 이용 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해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할부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는 할부이자(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

다.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조건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휴대폰 장기할부 구매는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인과 달리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으므로, 장기할부를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휴대폰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약정할인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별개입니다.

그 외에도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카드는 일반적으로 추가 연회비 없이 가족회원의 이용실적도 합산할 수 있어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가족카드에는 본인카드와 별도로 실적을 관리해 각각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으며,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액을 모두 책임지게 되는 등 일부 단점도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카드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신화 기자

금융 CEO들의 2018 경영 전략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

“농업인 보험 서비스 확대”

NH농협생명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 간 농협생명 수안보수련원에서 2018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다짐했다고 14일 밝혔다.

NH농협생명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각 지역 총국별 성과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조기 영업추진 분위기 확립 조성에 나섰다. 올해 농축협 채널의 보장성보험 목표(월납초회보험료 기준)는 202억원이다.

서기봉 사장은 “농축협 조기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보험 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자”며 “올해도 농업인과 고객의 소리에 경청하는 자세로 ‘행복한 라이프 플래너’로서 농협생명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서 사장과 김기주 부사장을 비롯 전국 영업 최전선에 있는 지역총국장 등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해 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년도 상품개발 방향 및 현장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두번째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김기주 부사장(두번째줄 왼쪽에서 열한번째)이 지역총국장들과 함께 2018년 목표달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NH농협생명

KB생명보험 허정수 사장

‘고객·디지털·가치’ 중심 성장

KB생명보험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올해 허정수 사장 취임 후 첫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영전략회의에는 허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본사 부서장, 현장 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017년 성과 리뷰, 보험연구원 전용식 박사의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 2018년 경영목표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KB생명은 올해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고객중심, 디지털 중심, 가치중심의 경영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제도변화와 환경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여 상품개발에는 신보험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 중장기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채널은 어려운 영업환경 극복을 위해 고능력·고효율 중심의 조직운영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허 사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사적 회의로 허 사장의 경영의지를 반영해 영업채널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지원부서는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을 다짐하면서 마무리됐다.

허 사장은 “2018년은 KB생명보험이 그룹의 위상에 걸 맞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이라며 “고객가치 또한 그룹 위상에 맞게 높은 한 해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KB생명보험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올해 허정수 사장 취임 후 첫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KB생명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기업 생존의 원동력은 ‘영업’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수원 KB인재니움 연수원에서 2018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고객중심 경영 등 4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KB손보 임원 및 부서장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종희 사장은 전 임직원들이 영업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양 사장은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고객의 트렌드가 바뀌어도 결국 기업을 생존하게 하는 것은 영업”이라며 “2018년은 KB손보의 전 임직원이 영업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손보는 올해 4대 추진과제로 고객중심 경영, 가치중심 성장,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경영기반 구축,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 상생문화 구축 등을 선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가치경영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신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KB손보 양종희 사장.

르포 | 힐스테이트 동탄2차 견본주택 가보니



지난 주말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서 문을 연 ‘힐스테이트 동탄 2차’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현대건설

테크노밸리 배후주거지로 ‘주목’

오피스텔 청약은 내일부터 진행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마련된 ‘힐스테이트 동탄 2차(주상복합아파트)’의 견본주택.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견본주택에서 제공하는 어묵과 호빵 등으로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동탄 2차’는 동탄 테크노밸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고 전 세대가 소형으로 구성돼 주택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탄2신도시 C-1 블록에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8층 4개동 규모로 총 679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54㎡ 아파트 443가구와 전용면적 22㎡ 140실, 42㎡ 96실 등 오피스텔 236실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동탄 테크노밸리 핵심 입지에 위치해 배후주거지로 인기가 높을 전망이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한미약품 연구센터를 비롯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연계된 업무시설이 입주 중이며 그린파워와 모베이스 등이 입주 예정이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A씨(43)는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단지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인근에는 대형 종합병원인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 있어 직주근접을 희

망하는 수요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도 좋다는 분석이다. SRT(수서고속철도) 동탄역이 반경 1.2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이를 이용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5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을 이용하면, 동탄역(예정)에서 삼성역(예정)까지 2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이날 견본주택을 살펴본 예비 신혼부부는 “회사가 강남에 있는데 교통편이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제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청약 일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청약 일정이 각각 다르다. 아파트 청약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아파트 당첨자는 24일 발표하며, 계약은 2월 5~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3개군으로 나눠 청약을 받는다. 1인당 균별 1개씩 최대 3건의 청약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청약은 오는 16일 아파트 유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일은 19일이다. 계약은 22일부터 진행된다.

/구세윤 인턴 기자 yuni2514@

사우디 100兆 규모 원전 건설 ‘최대 수혜’

株라쿨라의 종목 비에이치아이

한국형 중소형 원전 ‘스마트’ 구성 수주 규모에 따라 실적 성장 전망

“주력 사업 부문인 발전용 설비가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한 가운데 중동 특수 바람을 타고 대규모 신규 수주가 가능해 재 평가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2032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비에이치아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최 연구원은 “사우디는 총 100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 중 15~20% 가량은 한국형 중소형 원전 ‘스마트(SMART)’로 구

성할 계획”이라며 “비에이치아이가 한국형 중소형 원전 스마트의 사우디 수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스마트파워’의 2대 주주(지분 15.4%)이기 때문에 수주 규모에 따라 실적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스마트원전의 건설비용은 1기당 1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비에이치아이는 스마트파워 지분에 따라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보조기기 분야에서 1기당 약 1000억원 규모의 설비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비에이치아의 주력 사업인 HRSG(복합화력발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에이치아이는 1998년 설립된 발전용 기자재 전문 업체로, HRSG(복합화력발전)와 보일러(석탄화력발전) 등의 주기기 및 보일러와 터빈 등을 연결하는 보조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중 LNG기반의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스팀터빈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설비인 HRSG는 석탄화력발전 대비 유해 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힘입어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최 연구원은 “비에이치아이는 지난해 말 기준 5500억원 규모의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며 “올해는 보일러, 환경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40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신규 수주 금액인 2300억원에 비해 확대되는 것이다.

리서치알음은 비에이치아이에 대해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65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60.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10@

중소형주 펀드 ‘약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 ‘쭉쭉’

주간펀드동향

대형주 부진에도... 수익률 1.77%

국내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형주 펀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주(1월 5일~11일)간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0.87% 상승한 2487.91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보면 중형주(3.40%)와 소형주(3.33%)의 수익률이 대형주(0.90%)를 크게 앞질렀다.

이에 국내주식형 펀드는 해당기간 1.7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대형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가 약진한 결과다. 다만 주 중반 코스피 하락에 연동하며 인덱스펀드에서 자금 유출

단위: 개, 십억원, %

구분	펀드수	순자산	수익률		
			1주	1개월	연초이후
국내주식형	821	59,418	1.77	3.56	1.50
국내혼합형	624	17,706	0.43	1.02	0.26
국내채권형	249	17,238	0.00	0.07	0.00
MMF	126	89,601	0.03	0.13	0.04
해외주식형	707	26,059	1.79	5.32	4.02
해외혼합형	290	4,918	0.92	2.99	1.84
해외채권형	141	7,872	0.04	0.19	0.22

/자료: FnSpectrum (에프앤가이드 유형분류 기준)

이 발생한 결과 국내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전주 대비 4840억원 감소했다.

한편 신흥아시아펀드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형 펀드의 활약은 계속됐다. 해당기간 수익률은 전주 대비 1.79% 상승하면서 5주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형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에서는 러시아(3.70%)가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고, 베트남(2.66%), 인도(2.48%)이 뒤를 이어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이에 순자산은 전주 대비 5040억원 증가했다.

/손영지 기자

# ‘국산원료로 안전... 저칼로리로 건강’ 챙긴다

식품업계 다양한 신제품 출시  
안전한 먹거리 관심 지속적 증가  
다이어트 위한 저칼로리도 인기



곤약썩 빠지다. /롯데제과 우리콩두유. /연세우유

새해를 맞아 건강 관리와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발맞춰 식·음료 업계에서도 국산 원료와 저칼로리를 강조한 다양한 신제품들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진 분위기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국산 제품을 찾는 소비 트렌드와 무리하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함께 맞물리면서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 ◆국산 원료로 안전한 먹거리 중시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업계에서는 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우리콩두유 2종’ 국산 검은콩, 오곡 분말을 담아 만든 ‘우리콩두유 검은콩’과 국내산 땅콩, 잣과 보리, 현미, 등 19곡을 원료로 한 ‘우리콩두유 잣’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콩두유 2종’은 수입산 대두액이 대부분인 국내 두유 시장에서 국산 원료만을 사용해 제조해 화제가 된 제품으로, 국산 콩을 맷돌방식으로 곱질째 갈아 넣어 콩의 비지 성분과 영양성분은 물론, 칼슘까지 더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안정제나 유화제, 합성향료, 색소 등

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직접 개발해 산업화를 추진 중인 ‘검정보리’로 만든 음료도 주목받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에서 새롭게 출시한 ‘블랙보리’는 국내 최초로 100% 국내산 검정보리를 사용한 차 음료다. 일반 보리 대비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4배, 식이섬유가 1.5배 가량 많은 검정 보리 품종으로 만들어진 ‘블랙보리’는 건조한 겨울철 수분 보충과 같

증 해소에 탁월하다.

최근 출시된 동원F&B의 ‘양반 진한 사골 떡국’ 역시 국내산 쌀로 만들어진 국산 원료 식품이다.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해 옛날 방앗간 방식의 공법으로 떡을 만드는 것이 특징으로, 이렇게 뽑아낸 떡은 갓 뽑은 것처럼 쫄깃한 식감을 낸다. 끓는 물에 3분만 넣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조리 방식으로 언제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 ◆다이어트는 저칼로리 간식으로

새해 결심으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다이어트, 하지만 달달한 군것질이 새해 결심을 방해하고 있어 고민이라면 낮은 열량에 포만감을 물론, 맛까지 좋은 저칼로리 간식에 주목해보자.

롯데제과는 최근 다이어트 간식으로 좋은 곤약젤리 ‘곤약애(愛) 빠지다’를 출시했다. ‘곤약애 빠지다’는 칼로리가 거의 없는 저당 장 운동을 활발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곤약’을 주재료로 한 제품이다. 제품 100g당 39 kcal 정도로 칼로리가 낮은 편이지만 탱글한 식감이 더해져

포만감을 주며, 상큼한 과일 향을 더해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좋다. 짜먹는 타입으로 실내외에서 출출할 때마다 가볍게 꺼내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폴리페놀과 식이섬유를 넣은 저칼로리 음료도 눈길을 끈다.

한국야쿠르트가 선보인 ‘룩애플시크릿’은 풋사과를 20배 농축시킨 ‘풋사과추출폴리페놀’과 ‘식이섬유’를 액상 형태로 한 병에 담아낸 제품이다. 풋사과추출폴리페놀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가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며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룩애플시크릿’은 한 병에 30kcal의 낮은 칼로리로 가볍게 마시기에도 부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AI, 살충제 계란 등 먹거리 안전 이슈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다이어트 제품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이마트, 온라인몰 연매출 첫 1조 돌파

트레이더스 매출은 1.5조원 넘어  
적극적 투자로 성장동력으로 키워

이마트의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장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 매출은 1조5000억원 을 넘어섰다.

14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별도제 무제표 기준 전체 이마트 매출은 14조 47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 매출은 1조504억원으로 전년보다 25.2% 급증했다.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 성장이 정체되면서 온라인몰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장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 매출이 급증했다.

지난해 트레이더스 매출은 1조5213억원으로 전년보다 27.2%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을 연 군포점이 개장 이후 이달 10일까지 목표 대비 145.6%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이마트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후 점포를 정리하는 등 구조 개선을 진행 중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전경. /이마트

이 중 온라인몰과 트레이더스는 적극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트레이더스는 지난해 매장 3곳을 새로 열었고 올해는 2곳을 개장할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도 매진 행진 중인 에어프라이어와 같은 직소심 상품 개발을 통해 트레이더스의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마트몰은 슝 배송을 강화하고 온라인 전용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김포센터 옆에 비슷한 규모의 새 온라인 전용센터를 증설하고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전용센터 또한 확장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동시 프로모션 및 마케팅 활동, 이마트몰 단독 상품을 통한 상품 차별화 등을 통해 현재 주요 고객층인 30~40대뿐 아니라 온라인에 익숙한 20대까지 고객층을 넓혀겠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현대백, 설맞이 ‘10만원 한우세트’ 부활

국내산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  
5~10만원대 선물세트 60종 선보



현대백화점이 설 명절을 앞두고 10만원 이하의 국내산 선물세트를 대거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10만원짜리 한우를 5년만에 다시 판매하며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산지의 특산물을 선물세트로 구성해 내놓는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설 선물세트 중 10만원 이하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종류를 지난해 설보다 50% 가량 늘려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5만~10만원대 선물세트는 지난해 설(29종)보다 두 배 이상 늘린 60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10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1.35kg)가 부활한다.

현대백화점이 10만원짜리 냉장 한우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이다. 상품은 명절 선물 판매 기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위인 불고기(0.9kg)와 국거리(0.45kg)로 구성됐다.

온라인몰인 더현대닷컴과 현대H몰에서도 불고기(0.9kg)·국거리(0.9kg)으로 구성된 10만원짜리 한우 냉장 선물세트

를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측은 2개월 전에 미리 한우를 구매하고, 산지 직거래 등을 통해 10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백화점은 33cm 이상 국산 민어 6마리를 말린 ‘민어 세트’(10만원)를 비롯해 전복 20마리를 담은 ‘알뜰 전복 세트’(8만원), 사과·배를 각각 6개씩 포장한 ‘사과·배 센스 세트’(8만원) 등 10만원 이하 국내산 농·수·축·수산물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군산의 명물 ‘박대’를 말린 ‘군산 황금박대 세트’(10만원)와 무농약으로 재배한 ‘제주 흑하고’(10만원), 전남 임자도의 ‘황토 갯벌김 세트’(10만원) 등 지역 특산물 선물세트도 판매할 예정이다.

윤성경 현대백화점 생식품 팀장은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프로모션을 집중해 농·수·축·수산물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T2 매장 오픈 ... 노하우 총집합

신라면세점이 오는 1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화장품·향수 매장을 오픈한다.

신라면세점은 세계 유수의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향수 매장을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를 총집결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T2)에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화장품·향수 공항면세점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과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화장품·향수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08년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화장품·향수 매장을 운영해오면서 쌓아온 공항면세점 고객들의 이동 동선, 이동 속도, 매장 별 체류 시간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화장품·향수 매장을 오픈했다. /신라면세점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항 이용 고객에게 최적화된 매장 레이아웃을 구성했다.

공항면세점은 제한된 시간 안에 쇼핑을 해야하는 이용 고객의 특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매장을 둘러보고 쇼핑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신라면세점은 고객이 매장에 들어와

원하는 브랜드를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출구 게이트로 이동하는 통로에서부터 많은 브랜드를 한 눈에 겹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 고객의 이동 속도에 따라 체류 시간을 늘리고 매장 안쪽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프로모션과 체험공간을 곳곳에 배치했다. /김유진 기자

## 이랜드, 말레이시아서 슈펜 3호점 오픈

(슈즈 SPA브랜드)

이랜드리테일은 슈즈 SPA브랜드 ‘슈펜’이 말레이시아에 3호점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슈펜은 지난 2016년 10월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쿠알라룸푸르에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 지난달 조호바루에 3호점을 열었다.

슈펜은 조호바루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최대 규모의 쇼핑몰 패러다임 몰(Paradigm Mall)에 826㎡(250평) 규모로 입점했다.

조호바루는 싱가포르와 맞닿아 있는 국경도시로 주말에는 구매력이 높은 싱가포르 가족단위 고객들의 유입이 늘어나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싱가포르 지역 소비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핵심 상권이다.

최근 가성비와 좋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SPA에 대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집



객 효과가 뛰어나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이랜드 측은 설명했다.

이에 슈펜은 올해 상반기에만 말레이시아 내 3개점을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슈펜 관계자는 “슈펜이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시 쇼핑몰에 대형매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신 트렌드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한국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를 빠르게 반영하는 슈펜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3S로 퀀텀점프 원년으로”

(SMART·SEARCH·SAFE)

>> 1면 '애경 휴대 신사옥'서 계속

과감한 R&D투자·M&A 추진  
인재 등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 ◆3S 그룹 체질 개선

애경그룹은 2018년 경영방침을 3S로 요약하고 3S(SMART·SEARCH·SAFE) 실행을 통해 퀀텀 점프를 위한 그룹 전략방향을 공유했다.

SMART는 기존 업무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관행 및 경직된 조직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SEARCH는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M&A 추진 및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SAFE는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



애경그룹 채형석 총괄부회장. /애경그룹

는 안전과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법규 준수 및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애경그룹은 올해를 3S를 통해 애경그룹이 퀀텀 점프를 하는 원년으로 정했다. 전년대비 20%대의 영업이익 성장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4600억 원대의 투자를 계획했다.

안재석 그룹지주회사 AK홀딩스 사장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 발맞춰 애경그룹도 제주항공 등을 중심으로 올해 1300여명의 신규채용을 예정하고 있다”며 “2018년 애경그룹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는 그룹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포스코대우 김영상 사장(오른쪽)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 인천상공회의소 이강신 회장이 지난 12일 '인천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MOU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대우

## 포스코대우-인천시-인천상의 中企 해외진출협력 MOU

기업회의·전시 등 마이스 사업 논의

포스코대우는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지역 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마이스(MICE) 사업 등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MICE란 'Meet,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의 약자로 기

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을 총칭하는 산업이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대우는 중국 청두에 한국상품관 2호점을 열어 인천지역 중소기업 입점과 제품 홍보, 수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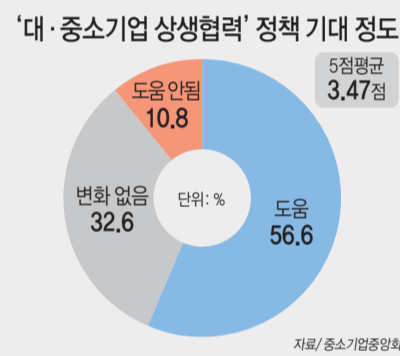
인천시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인천상의는 입점 업체 모집·관리를 맡는다.

포스코대우는 작년 6월 인천시와 함께 세계 최대 소비재 도매시장인 중국 이우시에 있는 국제상무성 수입상품관에 한국상품관 1호점을 개장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상생협력 목마른 中企 56% “정책 기대 높아”

중기중앙회 대기업협력체 대상 설문  
가장 효과적인 동반성장 정책으로  
'중소 적합업종·상생 결제시스템'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과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를 조사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타났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47.4%(복수응답)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꼽았다. 기술탈취 문제만큼은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35.4%로 높았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공정위·중기

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 구축'(32.4%)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45%가 협력이익배분제를, 35.2%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26.4%가 상생결제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을 각각 꼽았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27.2%),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관행 개선'(26%),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순으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정책에 대해선 56.6%의 기업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란 답변도 4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선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44.4%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29.8%가 '상생 결제시스템'을 꼽았다.

그러나 '적합업종 등 민간 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 등은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됐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중기부, 중소벤처무역협 설립 인가

160여개 회원사 보유, 3월 창립총회  
중소 해외 교역 도우미로 본격 활동



수출을 위해 문진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KOSTA)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14일 중소벤처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설립 인가는 중기부 출범 이후 경제단체 성격으로는 처음이다. 현재 160여개 업체가 회원사로 등록을 한 중소벤처무역협회는 3월 창립총회를 거쳐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교역을 돕기 위한 활동을 본격 펼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은 남전사 정난권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전 상근부회장이 공동으로 맡아 협회의 초기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수·출입을 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수출입 관련 전문가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협회는 우수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마

케팅 지원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인증, 무역 박람회 개최, 해외무역장벽 해소와 해외시장개척법제화 추진,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수요조사 연구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재희 공동회장은 "협회는 수출입 중소벤처기업간 상호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과 함께 통관, 인증, 규제 등 각종 수출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창립하게 됐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트론타워와 허브기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기존의 해외진출기관 및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서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 서울시 “오늘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5일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지역 버스,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를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

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 $\mu$ g/m<sup>3</sup>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다음 날 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공정위

서울시 상수도 사업 입찰  
'짹짹'한 9곳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GIS사업)' 입찰시 '짹짹'한 업체에 과징금 32억9200만원을 부과했고 법인과 임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했다.

이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입찰물량 확보를 위해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 대원환경, 삼아환경, 새한환경, 범야엔지니어링, 신한환경, 한국에스지티, 중항환경,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 중소·벤처 특허 수수료 부담 '확' 줄인다

특허청 '특허 키움 리워드' 실시  
납입한 수수료의 10~15% 페이백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으로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들이 낸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되돌려 주는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 키움 리워드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특허등록 후 전 기간에 걸쳐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관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고, 이에 따라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25호(2017.9.19)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 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조양호-조원태 부자의 '특별한 올림픽'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 사장)

나란히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구간서 참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 릴레이에 봉송주자로 나섰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성화의 서울 입성 첫 날인 1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구간 봉송 주자로 조 회장 부자가 참여했다. 국내 성화봉송에서 재계 부자가 주자로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한항공 운항승무원·정비사 등 임직원 20명도 봉송 지원 주자로 함께 뛰었다. 대한항공 성화 특별 전세기가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 지난해 11월1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성화는 전국을 돌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조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인연이 깊다. 2009년 9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성화봉송 서울 첫째 날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행사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으로부터 성화를 전달받고 있다. 성화를 전달받은 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장으로 활동하며 2011년 7월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또 2014년 7월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해 2년 동안 경기장 신설, 스폰서십 확보 등 준비 사항을 차질 없이 성사했다.

한진그룹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3월 대한항공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협약을 맺고 국내 후원사 중 최고 등급인 공식파트너로서 항공권 등 현물을 지속 후원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새로 나온 책

파리의 아파트

밝은세상/기움 위소 지음



기움 위소의 본격 스텔러 '파리의 아파트'는 그가 한국에서 14번째로 출간하는 장편소설이다. 무려 200주 이상 베스트셀러에 등재되며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구해줘'를 비롯해 이후 출간한 13권의 소설이 모두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만큼 기움 위소는 여전히 프랑스 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가다.

이번 '파리의 아파트'는 죽기 직전까지 납치된 아들의 생존을 확신하고 찾아 헤메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천재화가 손 로렌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그림 석 점과 납치된 아들을 찾아 나선 전직 형사 매들린과 극작가 가스파르가 비밀의 열쇠를 풀어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천재화가의 신비스런 창작 세계, 예술가들의 고뇌와 열정,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전직형사 매들린과 극작가 가스파르는 임대회사의 실수로 파리의 아파트에서 원치 않는 동거를 시작한다. 천재화가 손 로렌츠가 살았던 집으로 여전히 그의 숨결과 자취가 배어 있는 그 집의 법적상속인은 그들에게 화가의 납치된 아들과 사망 직전에 그린 그림 석 점이 사라진 사실을 이야기한다. 매들린과 가스파르는 의기투합해 화가의 그림과 아들을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 손의 비밀을 파헤쳐 가는 동안 두 사람은 눈앞으로 다가서는 연쇄 살인마의 그림자와 대면하게 된다.

408쪽, 1만4500원

/신원선 기자 tree6834@



## 한화-KAIST, 중학생 50명 과학캠프

한화그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중학생 대상 과학캠프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지난 11일부터 2박3일간 KAIST 대전 본원에서 펼쳐졌다. 과학 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는 대전지역 중학생 50명이 참가했다.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과학영재 학생들

을 발굴하고, 우수 이공계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한화그룹과 카이스트가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카이스트 학생과 교수들로부터 과학 원리를 배우고 친환경 에코하우스와 오토봇(오픈소스 하드웨어 로봇)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구 온난화 문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물리·생물·기술공학 수업이 제공됐다.

/오세성 기자 sesung@

과학캠프 참가 학생들이 카이스트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직접 제작한 친환경 여교하우스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화그룹

## 아무도 나에게 상처주지 않았다

북리뷰/박인철 지음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나름의 처방전을 제안하는 생활철학서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인생경험과 함께 늘어놓는다. 저자는 살아있는 현자들의 말 속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상처받지 않기 위해 깨달아야했던 본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224쪽, 1만5000원

/신원선 기자

### 신점[神占] 운세

1월 15일 (음 11월 29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60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72년생 멀리 내다보세요. 84년생 사세를 줄여야 하겠습니. 96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  61년생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73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85년생 병자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병입니다. 97년생 여건은 모든 일에 좋지 않으니 자중하세요.
-  50년생 여자를 주의하세요. 62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74년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세요. 86년생 남자아이를 낳게 되며 아이가 약한 것이 흠입니다.
-  51년생 여행을 가도 실속이 없고 피곤합니다. 63년생 문단속과 물건 관리에 유의하세요. 75년생 배우자나 연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  52년생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주의하세요. 64년생 시비가 있으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76년생 때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88년생 아직은 행동하기 보다는 좀 더 참는 게 좋습니다.
-  53년생 웃음이 만발하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겠습니다. 77년생 다칠 수 있으니 행동과 안전에 주의하세요. 89년생 이성과의 싸움은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54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6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세요. 78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세요. 90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  55년생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은 운입니다. 79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91년생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
-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옛 본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급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58년생 싸우던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천천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길합니다. 82년생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4년생 운이 길할수록 주위의 시샘도 함께 주의하세요.
-  59년생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7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길합니다. 83년생 운동을 하면 몸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95년생 사방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4	6	7			
4	3			8			1	7
		7				9		
		7		5				
	1	2		8	3			
	4							2
	7	5		2		1	4	
		6				8		
3			9	7	1			5

			1				2	6
8						6		4
2				7				
	8		9		4			
	3	5					4	1
			6		3			8
						9		
4			2					7
	2	3				1		


스도쿠 정답

5	9	2	1	4	6	7	8	3
6	4	8	7	5	9	2	1	3
3	7	1	9	2	8	5	4	6
1	2	4	8	6	9	8	7	5
9	5	8	7	2	1	6	4	3
8	6	7	5	1	4	9	2	3
7	8	6	2	1	4	5	9	3
2	1	9	6	8	5	2	7	4
4	5	4	9	7	6	1	8	3
6	7	1	4	9	8	5	2	3
4	5	9	1	8	7	8	6	7
2	8	5	6	7	4	1	9	3
5	8	6	9	1	2	7	4	3
9	1	7	2	8	4	5	6	3
3	2	4	7	5	6	9	8	1
1	6	5	8	4	9	7	9	2
7	4	8	9	2	1	6	5	3
8	9	2	6	7	5	1	4	8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 임신이 어려운 현대 여성들



결혼 적령기를 지난 지 오래된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찾아오는 칠순을 넘긴 부모님들도 적지가 않다. 또 어떤 시어머니는 결혼을 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어 가는데 아이를 가진 생각도 안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는 분들도 적잖이 계시다. 멀쩡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 놓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젊은 부부들이 적지 않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자니 시대가 달라져도 한 참은 달라졌다는 생각에 격세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는 것도 보통 걱정거리의 아닐 것이다. 지난 달 법회 때 어떤 노인도 한 분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어가는 손녀딸이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병원에서 하는 시술을 받고 있는데 벌써 세 번이나 실패하였다 한다. 결혼하고 2년은 신혼을 즐기겠다고 일부러 피임을 한 모양인데 그 이후부터는 아기를 갖고자 당연히 피임도 중단하였는데 계속 임신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오랜재 들어서서는 인공수정에 이름이 난 병원에 다니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손녀딸 자신도 스트레스가 많아 이제는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하도 답답하니 원장님께 묻는다며 하소연을 한다. 손녀딸이 81년 신유생(辛酉生)이니 이제는 서른여덟 살이고 올 해도 안 되면 내 년인데 걱정이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손녀딸의 사주명조를 보아하니 태어난 해의 년지(年支)와 일지(日支)가 화금(火金)으로 상극하는 가운데 자녀의 기운이 되는 상관성(傷官性)에 공망이 들어 있어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아예 자식 운이 없는 사주는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요하니 예전 같으면 칠성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경우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일 리가 없으니 천상 천정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며 흔히 말하는 임신부를 써보는 방법도 방편이 된다. 다행히 세운 적으로도 2018년 음력 5, 6월경엔 손녀의 자녀 궁에 공망이 되는 지지에 함이 들어온다. 이럴 때 공망이 잠시 힘을 잃으니 그동안 몸을 편안하게 하여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한다. 사주팔자의 원국에 자손이 귀하더라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아기가 생길 운이 있으니 마음을 편히 갖고 수태가 잘 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위해 섭생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위에 말했듯 칠성기도 또한 최소 삼칠일은 할 것을 권하였다. 희색을 띠우며 돌아가는 노인도분이 분명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격 있게 삼시다



김민소앙의  
당탕평평

필자의 직업은 좀 다양하다. 정책연구소장으로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며, 동시통역을 하고, 방송을 하고, 강연을 하고, 칼럼을 쓰는 것이 주된 일이다. 이런 일들의 공통점은 언어와 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어와 글은 그 익숙함에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정확한 상대방의 직함을 불러주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필자의 경우 까마득한 후배나 연하에게도 상대방이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쉽게 반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부터 받은 명함의 직함을 정확히 불러주는 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려 하더라도 '대표님, 선생님,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즐겨 부른다. 이유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상대를 대우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는데도 상대의 직함을 다르게 부르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호칭이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마디로 무례한 일이다.

다. 아울러 친근감의 표시인지는 모르지만 가깝지 않은 사이에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어정정한 화법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성인끼리의 대화로는 적절치 않다.

필자와 아주 가까운 지인의 예다. 그분은 모 대학에 교수로서 재직 중이고 올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교육감으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나이로는 삼촌 내지 큰 형님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이다. 이 분은 오랜 세월 교제를 하면서도 아직도 필자에게 어깃없이 존대를 하신다. 오히려 필자가 거듭 부탁을 드려도 한결 같으시다. 관계상 불편하고 어색함에도 항상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에서 필자로 하여금 진심어린 존경심과 그 분에 대한 권위를 내 스스로 가지게 만드시는 매력의 소유자다. 지식인 이전에 인성이 정말 바른 분이다.

중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반말을 하고, 단지 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아무런 교제가 없었음에도 함부로 말하고, 친근한 관계가 아직 아님에도 나이로 서열을 가려 형님이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다.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셈이다. 또한 남이 보기에 결코 좋아 보일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흔히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을 쓴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사귀고 어울린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

그럴 때 가장 자연스럽게 비교적 오해와 갈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과거의 신분 사회도 아니고 급기야 '4차산업혁명'이 대두되는 마당에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많은 것이 공유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폭넓은 교제가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좀 '격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씩은 스스로를 중간점검 할 수 있는 통찰력과 센스가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상대의 단점만을 찾아서 내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런 식으로 타인과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고 스스로 변화될 때 비로소 타인과 세상이 바뀌게 된다.

성경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도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라'라는 말씀이 있다. 적절한 언어가 적절한 행동을 만들고, 적절한 행동이 나와 우리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유연함이 곧 '격 있는 관계'와 '격 있는 사회'를 만들게 된다.

필자 자신을 포함한 내가 아는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 국민께 부탁하는 바이다. "격 떨어지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격 있게 삼시다." /대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알 감디 에쓰오일 CEO, 산행으로 신년각오 다져**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CEO가 지난 13일 서울 북한산 우이령길에서 임원 및 부장급 이상 직원,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등 200여명과 산행을 하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14일 에쓰오일에 따르면 알 감디 CEO는 임직원들과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에쓰오일

## 우분, 대학생 서포터즈 80명 모집

올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여금, 마케팅, 홍보, 사회공헌 등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8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사회공헌활동 ▲일일우체국 직원 체험 ▲우정서비스 체험 및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대내·외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생은 이달 26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



아 소재지 관할 지방우정청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은 내달 5일 개별 통지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체국금융개발원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나인 기자 silkni@

## 미리 알려주셔야죠



기자수첩  
이범중  
(유통&사회부)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못해 지탄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의 '아이폰(iPhone) 배터리 게이트'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기술 문제만이 아니다. 애플은 아이폰 배터리 노후화와 영하의 날씨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시적 성능저하'를 택했다. 과거에 비해 추운 날씨 때문에 꺼지는 일이 줄었으니, 애플의 방침을 기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애플의 아이폰 성능저하 원인 발표에 '최적화의 배신'을 느꼈다. 애플은 '엔드 투 엔드(end to end)'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디자인 한다는 의미다.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두 요소가 최적의 성능과 디자인으로 통합되는 장점이 있다. 맥(Mac)과 아이폰(iPod), 아이폰의 탄생 배경이자, 애플 혁신의 DNA이기도 하다.

반면 이 같은 방식은 '우리가 모든 요소를 직접 디자인하므로, 소비자가 신경 쓸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자세와 맞물리게 된다. 본래 의도와 상관 없이 '소비자 기망(欺罔)'으로 비춰질 정책을 펼 위험성이 있다. 애플이 내세우는 최적화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양날의 검'인 셈이다.

다른 회사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인텔은 최근 자사 중앙처리장치(CPU)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인텔이 'CPU게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패치를 내놨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패치를 설치할 경우 PC가 무작위로 꺼졌다가 다시 켜진다. 보

안패치 설치를 연기하라는 권고마저 나왔다.

유료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아는형님' 등 일부 한국 예능에서 출연자가 춤 출 때 엉뚱한 경음악을 넣거나 모창 장면을 아예 빼는 식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회원 약관에는 관련법에 따라 서비스한다고 적혀있지만, 국내 다른 업체는 본방송 그대로 서비스 한다. 넷플릭스 측은 시청자가 한 달에 1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도 극단적인 편집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기업의 잇따간 처신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 회사는 추상적인 약관을 내세우기 전에, 소비자가 불편해질 부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기업이 솔직하게 인정한 단점을 압도할 장점에 마음을 열고 '동의합니다'를 누를 것이다. /joker@metroseoul.co.kr



**한화손보, 신입사원 DIY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  
한화손해보험은 2017년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29명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경로당 다섯 곳을 방문하여 DIY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신입사원들은 지역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발장, 서랍장, 식탁세트 등 총 8조를 조립했다. /한화손보



**IBK연금보험, 사회복지기관에 복지차량 후원**  
IBK연금보험은 지난 12일 본사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차량을 기증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기관 차량후원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IBK연금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전국 300여 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하여 서류 심사 및 해당 기관 실사를 통해 총 4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원된 차량은 도시락 배달, 병원동향, 주거환경개선 등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왼쪽에서 네 번째)IBK연금보험 장주성 대표이사. /IBK연금보험

### 인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 미디어연구센터장 정봉근 △ 광고기획국장 이종경 △ 광고매체국장 금장환 △ 경영기획실장 조영현 △ 지역언론지원국장 윤현배 △ 뉴스유통국장 조동시
- ◆한국고용정보원 ◇ 부사장급 △고용서비스전략실장 김한준 △고용정보분석센터장 권혜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주우현 △일자리정보플랫폼실장 박건욱 △정보화운영실장 임종훈 △ 기획조정실장 김영민 △ 청렴감사실장 안홍균
- ◆수원시 ◇ 승진 △ 서울사무소장 김진표 △ 장안구 김도현 △ 장안구 정호현 △권선구 김충환 △ 권선구 안병철 △ 권선구 임병포 △ 권선구 허숙경 △ 팔달구 송성덕 △ 팔달구 한장수 △ 영통구 김기서 △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정철호 △ 북수원도서관 갈미숙 △ 팔달구 김영미 △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도로정비과장 윤홍선 △ 장안구 김정화 △ 권선구 최광균 △ 권선구 허명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계측전기평가실장 박현신 △ 검사업무관리실장 장창선 △ 원자력운영분석실장 김도삼 △ 원자력비상대책실장 김홍석 △ 방사선비상대책실장 권정완 △ 영광주재검사업무팀장 최중수 △ 신고리5·6 PM 이정재 △ 공급자QA PM 오규명

### 부음

- ▲ 정선택 씨 별세, 홍영준(동서화학공업 상무) 유인근(스포츠타일러 체육부 부국장) 조운선(자영업) 최창수(하이난항공 기장) 씨 장인상 = 14일, 서울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2-2227-7594
- ▲ 심재식씨 별세, 김요셉(대덕넷 취재팀장)씨 장인상 = 13일 오후 8시 40분, 충남 논산시 황산장례문화원 202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41-733-4447
- ▲ 이충식 씨 별세, 이병돈(순천향대학병원 교

- 수)·병선(KEB 하나은행 차장)·화영(서울 중평중학교 교사) 씨 부친상 = 14일 낮 12시 15분, 대전 유성선병원 VIP 1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42-825-9494
- ▲ 신용경 씨 별세, 신연재(교보생명 법원본부장)·진경·정인 씨 부친상, 송희중(더조은병원 마취통증과장)·김한욱(전북대병원 피부과장) 씨 장인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16일, 02-3010-20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 과기정통부·KISA, 클라우드 지원사업 공모

23일 KISA 서울청사서 사업설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서비스를 발굴하는 '클라우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연구진을 모집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5억 원이며 '서비스 환경 구축' 분야에 4팀, '보안서비스 개발'에 2팀 등 총 6팀을 선정한다. 23일에는 송파구 가락동 KISA 서울청사에서 사업설명회도 연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받는 다. /김나인 기자

영화 VS 영화

2018년 새해 극장가에 남들과 달라서 다소 생소하지만 특별한 매력을 지닌 이들이 관객과 만난다. 남들과 다른 외모를 지닌 '어기'가 주인공인 '원더'와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를 그린 '그것만이 내 세상', 두 영화가 현대사회에 만연한 '다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따뜻한 시선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다름'에 대한 편견 없애줄 감동 스토리

◆ '원더' 헬멧 속에서 마주한 용기  
영화 '원더'는 헬멧 속에 자신을 숨겼던 아이 '어기'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며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동시기 상영작 중 네이버 평점 1위에 등극하며 새해 극장가의 웰메이드 힐링 무비로 손꼽히고 있다.

주인공 '어기'는 트레처콜린스 증후군(귀, 눈, 광대뼈, 턱뼈를 포함해 얼굴의 기형을 특징으로 하는 선천성 장애의 일종)으로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지녔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호기심 많은 성격의 긍정적인 10살 소년.

'어기'를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그

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변의 시선을 점차 변화시킨다.

제작 초기 단계부터 안면기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제작진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문제는 그들을 옳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름'에 편견을 가진 부정적인 시선에 상처받는 안면기형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평범하게 바라봐주는 인식의 변화임을 강조했다. 영화에는 제작진의 이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영화는 전세계 800만 독자를 사로잡은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탄생했다. 북미에서 개봉 첫 주 2700만불의 흥행 수익을 내며 동시기에 개봉한 '토르:라그나로크'와 '저스티스 리그' 등 블록버스터 틈에서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이후 릴레이 호평 속에 장기 흥행에 돌입, 1억불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국내 관객들에게도 공감을 증폭시켰다.

## 원더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어기' 헬멧속에 숨긴 자신 드러내 긍정적 마인드로 편견 없애

화려한 액션과 블록버스터 틈에서 중간 규모의 제작비와 기획력, 빛나는 메시지로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고 있는 '원더'의 기적 같은 흥행 성공은 여러 면에서 뜻깊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영화 '원더'를 본 관객들은 '어기'와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따뜻한 시선에 대해 뜨겁게 공감하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다.

## 그것만이 내 세상



이병헌·윤여정·박정민 출연 서번트 증후군 '진태'와 엄마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 '그것만이 내 세상' 감동과 재미 다 잡았다!

남들과 다르지만 특별한 매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바꿔줄 또 하나의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오는 17일 개봉하는 '그것만이 내 세상'(감독 최성현)은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이병헌)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 '인숙'(윤여정)과 서번트 증후군인 동생 '진태'(박정민)를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과정을 그린 영화다.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발현되는 일부로 특정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는 증상이다. 영화 속 주인공 '진태'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이고 게임, 라면, 피아노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피아노 천재 소년이다. 영화는 '조하'가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와 한집에 살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동시에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눈여겨 볼 포인트는 다름아닌 두 형제의 케미다. 이병헌과 박정민은 흠 잡을 곳 없는 완벽한 연기로 극의 몰입력을 높인다. 코믹 가족극이라는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장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배우의 열연 때문이다. 이병헌의 능청스러우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연기와 박정민의 섬세한 장애 연기가 빛어내는 환상적인 형제 케미는 이 영화가 내세우는 최고의 관전 포인트다.

1월, 남들과 조금 다르지만 특별한 그들만의 이야기에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 해바라기, 나팔꽃 (제주 팜랜드)

당신이 있어 나는 더 꽃이 됩니다. 꽃 피운다는 것, 그 자체가 새로운 희망입니다.

/고흥근 작

# '날고싶은 욕망' 현실로 만든 스포츠

##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7 스키점프

2014년 소치 올림픽부터 여성 참가 도약대 거리로 노멀힐·라지힐 구분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스포츠가 있다. 바로 스키점프다.

스키점프는 19세기 후반 북유럽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해 제1회 동계올림픽인 1924년 샤모니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1964년 인스브루크 대회에서 노멀힐 종목이 추가됐고, 1988년 캘거리 대회에서 단체전이 정식종목에 포함됐다.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올림픽 스키점프가 여성에게도 개방된 것은 2014년 소치 대회부터다.

스키점프는 비행 거리와 자세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가른다. 흔히 아는 것처럼 멀리 날아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5명의 심판은 도약과 비행, 착지를 2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이 중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뺀 나머지 3명의 점수를 합산해 6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착지도 중요하다. 이상적인 자세는 한쪽 무릎을 굽힌 채 양팔을 벌리는 것이다. 이 동작의 이름은 텔레마크(Telemark)로 실패할 경우 큰 감점을 받는다.

올림픽 스키점수 사상 최초로 심판 전원에게 20점 만점을 받은 선수는 가즈요시 후나키(일본)다. 그는 1998년 나가노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독일 힌터자르텐의 2017-2018 국제스키연맹(FIS) 스키점프 월드컵 여자 노멀힐 개인전에서 다카나시 사라(21·일본)가 높이 날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회 스키점프 라지힐에서 사상 첫 만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남자 노멀힐(K98)과 라지힐(K125), 여자 노멀힐(K98), 남자 단체전(K125)까지 총 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노멀힐과 라지힐을 나누는 기준은 도약대의 거리다.

점프대 규격을 분류하는 데 쓰이는 'K'는 독일어 크리티슈 포인트(Kritisch Point)의 약자다. K125는 비행 기준거리가 125m, K98은 98m인 식이다.

선수가 기준거리에 도달하면 기본점수 60점이 주어진다. 1m를 더 날아가면 라지힐 기준 1.8점을 추가하고, 모자라면 1.8점씩 감점한다. 노멀힐은 2점이 주어지거나 깎인다.

멀리 날아가기 위해선 순풍보다 역풍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역풍 때 양력의 영향을 받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자세도 한몫 한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스키 앞을 벌리는 'V'자 자세를 취하면 바람에 몸을 맡기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선수는 남자 카밀 스토흐(폴란드), 여자 다카나시 사라(일본)다.

한국에서 스키점프는 영화 '국가대표'를 통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1998년 나가노 대회에서 활약했던 최흥철, 최서우, 김현기(이상 하이원)는 여전히 국가대표로 활동 중이다.

여자 스키점프 국가대표 1호 박규림(상지대관령고)도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스키점프에 출전한다.

평창에서는 10일 남자 노멀힐을 시작으로 12일 여자 노멀힐, 17일 남자 라지힐, 19일 남자 단체전 순으로 경기가 열린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1월 15일  
음력 : 11월 29일

수도권 날씨  
2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46 | 해질 / 17:37

백령도 1/3, 파주 -3/5, 인천 2/5, 수원 1/6, 평택 1/7, 연천 -1/6, 동두천 0/7, 가평 -1/6, 서울 2/7, 양평 -1/7, 용인 1/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쇼핑몰 등 실패 거름삼아... 초간단 결제로 올 취급액 200억

## 난 멈추지 않는다

### ‘페이업’ 설립자 문 병래

‘눈물 젖은 빵’으로 설명하기 힘든 좌절이 있다. 남과 다른 선택과 주위의 시선에는 늘 외로움이 따라붙는다. 그럼에도 “난 멈추지 않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도전에서 희망과 위로를 느끼다 보면, 어느새 작은 도전을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편집자 주)

# 인터넷 카페에 ‘무통장 입금 안내’를 적던 사장 A씨는 답답함을 느꼈다. 제품 구매 신청을 했던 소비자들이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다, 편의상 마련한 예금주 이름과 본인 이름이 달라 의심을 사기도 해서다. 그러다 신용카드 O2O(Online to Offline) 결제 업체 ‘페이업(Payup)’과 계약한 뒤로 매출액이 경종 뛰었다. 무통장 입금 시절의 ‘구매 이탈률’도 대폭 줄었다. 페이업의 카드 결제 링크 덕분이다.

“벤처 세대의 쓰디쓴 경험이 지금의 ‘상승세’를 만들어줬죠.”

단국대 무역학과 96학번인 문병래(41) 페이업 사업가는 ‘벤처 열풍’이 한창이던 1999년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다. 컴퓨터 동아리 회장이던 3학년 때였다.

“당시에는 잘 나갔죠. 산업자원부 장관 상도 받고, 주요 인사들이 투자자로 나서기도 했으니까요.”

처음 4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14명 규모로 커졌지만, ‘벤처 거품’과 함께 가라앉았다. 더이상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결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소 교수(사진 왼쪽)와 문병래 페이업 사업가. /페이업

### 액티브X 없는 간편한 결제 제공 소비자의 ‘구매 이탈률’ 줄여 매출 ↑

국 한국신용카드결제에서 직장인 생활을 시작하며 오프라인 결제 업무를 배웠다.

이른바 ‘모바일 뱅킹’을 터뜨린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올 무렵인 2009년에는 신용 시장에 눈을 떠 온라인 결제 회사로 이직했다. 이후 수공업품 유통을 위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 나이가 아니면 평생 사업을 못 할 것이라 보고 봤어요. 잘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에게 노하우로 남게 됐죠.”

#### ◆결제시장의 빈틈을 노렸다

문 이사는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잘 하는 일을 먼저 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방 사장들이 알려준 ‘결제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기로 했다. 2016년 페이업이 문을 연 배경이다.

그런데 회사를 세운 사람이 어째서 대

표가 아닌 ‘사업이사’일까. 대표이사는 지앤비교육 출신인 아내 최진선 대표가 맡았다. 최 대표의 뛰어난 영어 실력이 해외 영업에 도움 되는데다, 정부가 여성 CEO 지원 정책을 펴는 점도 고려했다.

페이업의 목적 또한 ‘실속’을 따른다. ‘소비자는 편하게 사고, 판매자는 돈 잘 버는 서비스.’ 문 이사는 “판매자는 간편히 카드결제 하고, 소비자는 액티브 X 없이 물건을 사니 무통장 입금 시절의 ‘구매 이탈률’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페이업은 400여 제휴사에 ▲신용카드 수기결제(판매자가 카드 정보 입력해 결제) ▲SMS결제(구매자가 카드정보 입력) ▲URL(파일 식별자) 링크결제(문자 속 링크 눌러 구입 화면으로 이동)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기결제는 판매자가 페이업의 상점 관리자 누리집에 로그인 한 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펜션이나 세무사·회계사 사무실에서 주로 쓰인다.

SMS결제는 판매자가 결제 요청 문자를 보내면, 구매자가 문자 속 링크로 직접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다. 학원과 공부방, 각종 협회와 행사 기획사가 활용한다. 개인 정보 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에게 ‘제가 문자 보낼테니, 그 안에 정보를 넣어 결제하시라’고 안내하면 된다.

#### ◆‘미니홈피’ 같은 무료 쇼핑몰 제공 ‘매출 경종’

가장 대중적인 방식은 ‘URL 링크결제’다. 판매자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페이업이 만든 결제요청 주소를 넣는다. 구매자가 해당 링크를 누르면 상품 정보가 담긴 결제창이 뜬다.

이 방식은 페이업이 각 제휴사에 무료 제공한 쇼핑몰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업체 대표가 페이업이 마련한 기본 주소에 자신의 아이디를 붙이면, 해당 쇼핑몰 화면이 나온다. 회원마다 자신만의 누리집을 가질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같은 개념이다.

판매자가 제품 설명과 함께 사진, 동영상과 넣고 전체적인 색감도 바꿀 수 있다. 누리집 화면 상단에는 업체 로고를 넣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초기 가입비 20만원에 결제 수수료 3.3%(부가세 별도), 보증보험 2만5420원(200만원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8~12%에 이르는 대형 플랫폼에 판매자 등록 하기보다는, 소셜 미디어와 자체 쇼핑몰에 결제 주소 넣는 편이 훨씬 낫지요.”

판매자를 위한 틈새시장의 성과는 무엇일까. 문 이사는 “우리가 사장님들

께 결제 주소 하나 제공했을 뿐인데 매출이 평균 30% 이상 올랐다. 그야말로 사장님들의 페이(Pay)가 업(Up)된 셈”이라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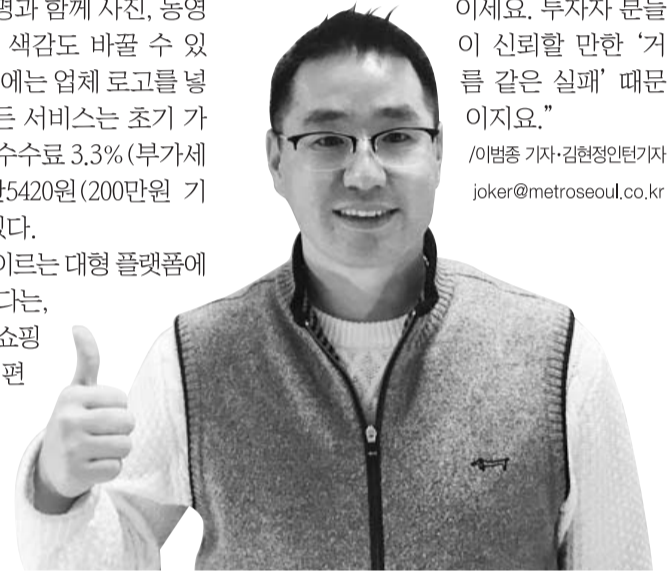
결제 시장의 난제는 보안이다. 페이업은 이달부터 블록체인(분산장부 체계)을 통한 보안 강화에 들어간다. “2016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권위자인 박수용 교수님을 만나 기술 이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결제·상점·고객 정보가 중앙 서버에 저장돼 위변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덕분에 모두 안전해졌습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페이업은 특히 2개와 기술 이전 1개, 중소기업청 연구개발 과제 1개, 매출 4억원 등 신규 업체로는 쌓기 힘든 성과를 얻었다. 올해는 베트남 시장 진출과 은행 취급액 200억원을 노린다.

“처음에는 좋은 실적을 의심하던 분들도, 저의 경험담을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

이세요. 투자자 분들이 신뢰할 만한 ‘거름 같은 실패’ 때문이지요.”

/이범중 기자·김현정인턴기자  
joker@metroseoul.co.kr



## 자진폐교 대구미래대, 학생·교직원 어디로

학생 총원 어려움 겪어 폐교 재적생 264명 특별 편입학 교직원 70여명 실직 불가피



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미래대가 자진 폐교를 신청한 이유는 신입생 모집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돼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대구미래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대학(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됐고,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 기준 34.8%에 불과해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심화돼 오다 지난해 6월 2일 교육부에 폐지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 264명은 대구·경북지역 소재 타 대학 유사 학과나 전공으로의 특별 편입학이 추진되고, 학적부 관리와 기 졸업생

의 증명서 발급 등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70여 명의 교직원들은 구제 대책이 없어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미래대 소속 교직원들은 자진 폐교 결정에 대해 학교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애광학원의 재산과 경영권이 존속되는 반면, 교직원들의 생존 대책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설립자가 같은 대구대 영광학원의 고용 승계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교육부의 권한 밖의 일이라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미래대 폐지에 따라 장과유치원만 운영하게 되는 애광학원의 관할청이 기존 교육부에서 경북교육청으로 바뀔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

## 겨울방학 석면제거 학교 1240곳 점검

석면 잔재물 피해 우려로 특별 점검

학교 시설의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에 의한 주변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가 전국 초·중·고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비산 등 관리소홀이 발생할 경우 작업 중지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실시되는 전국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면 공사가 이뤄지는 학교 건물은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333개교로 가장 많고,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강원·대구 각 83개교, 서울 79개교, 경남 61개교 등 전국 1240개 학교에서 15일부터 내달 초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는 석면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2000㎡ 초과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800㎡ 이상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각 교육청이 각각 점검한다. 법적으로 감리인이 없어도 되는 800㎡ 미만 작업장 236곳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공사 기간 중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한용수 기자

### 〈2018년 서울시 초·중학교 규모별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구간	급식인원수(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2018 단가	2017 단가	증가	2018 단가	2017 단가	증가	
1	~300	3,775	3,605	170	5,632	5,300	332	
2	301~500	3,480	3,365	115	5,305	5,030	275	
3	501~800	3,377	3,255	122	4,993	4,730	263	표준단가
4	801~1,100	3,385	3,250	135	4,868	4,615	253	
5	1,101~	3,347	3,215	132	4,768	4,515	253	

/서울시교육청

## 서울 무상급식 질 높인다... 예산 191억 ↑

무상급식비 예산 총 3083억 편성 소규모 학교 급식 여건 개선될 듯

올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점심식사 단가가 인상된다. 급식인원 3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상폭을 더 높여 현실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 인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년보다 191억 원 증액해 총 3083억 원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급식 질 향상과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을 마련해 학생 수에 따라 5 구간으로 나눠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급식과 비교해 소규모 급식의 경우 식재료 발주 등의 비용이 더 들어 상대적으로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 300명 이하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는 전년보다 170원 증가한 3775원, 같은 규모의 중학교는 전년보다 332원 증가한 5632원을 지원하게 된다. 중학교 지원 단가는 식사량이 크고, 급식비에 인건비가 모두 포함돼 급식비 중 일부를 별도 지원 받는 초등학교 급식지원 단가보다 높아 차이가 발생한다.

무상급식 표준단가인 500명 초과 800명 이하 규모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가 3255원, 중학교는 4993원으로 책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예산구조가 복잡해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를 식품비와 분리해 교부하고 분리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 여건이 개선되고, 학교와 학생 간 급식의 질 차이를 해소해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규모 학교도 공감하는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산업] BMW '윈터라이빙 체험기' '타이머만 바뀌도 생생' 10

[금융]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우수인재 육성 최선" Life 리더 행동수준 올라야 11



# 김치 나누고 과일청 선물도 대표 식품업계의 '맛있는 나눔'



- ①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이 소외계층에 나눠줄 갖김치를 담고 있다.
- ②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이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③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이 헌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④ CJ제일제당 소재사업부문 임직원들이 직접 담긴 레몬청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사진=CJ제일제당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⑦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식품 제조업의 특성을 살린 각종 사회공헌을 통해 핵심 경영철학인 사업보국을 실천하는 데 힘쓰고 있다.

CJ그룹의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봉사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02년부터 임직원들이 푸드뱅크에 기부할 생필품 선물세트를 조립하는 기부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임직원이 조립봉사를 통해 준비하는 선물세트는 매해 연 평균 1만8000~2만개 정도다. 한 세트 당 4인 가족이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고추장, 된장,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으로 구성된다. 제품들은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등 복지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매년 김장철이 다가오면 CJ제일제당은 서울김장문화제 김장나눔 행사에 참가해 CJ나눔재단과 연계한 임직원 김치담그기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임직원이 담긴 김장김치는 각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를 거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지난 여름부터는 겨울철 담근 김장 김치

## 매년 생필품 선물세트 2만개 전달 김장철, 임직원이 담긴 김치 나누고 계절마다 건강 위한 과일청 선물도 벽화그리기·헌혈 등 임직원 참여↑

가 다 떨어질 시기에 맞춰 각 지역 소외계층에게 직접 담긴 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장 외에도 계절마다 지역 소외계층의 건강을 위해 청을 담아 선물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다. 5~6월은 본격적인 매실철로 CJ제일제당 임직원은 '백설 스위트리 자일로스 설탕'과 '백설 올리고당'으로 만든 건강한 매실청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임직원이 직접 다듬고 설탕에 쥬 매실로 만든 매실청 120병(2kg)을 지역사회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이 여름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전달했다.

겨울철에는 지역 소외계층에 '백설 스위트리 자일로스 설탕'과 '백설 올리고당'으로 만든 건강한 레몬청을 만들어 선물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여름철 건강을 위한 매실청이 반응이 좋아 겨울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레몬청을 만들어 전한 것이다.

CJ제일제당은 제품뿐만 아니라 'CJ제일제당 재능나눔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해 임직원의 재능을 기부하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인 '벽화아트'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꽃을 기부 받아 플라워박스 제조해 지역사회에 전달하거나 대안 학교 청소년들에게 원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플로아트', 소외계층 중 사진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포토아트' 등의 나눔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재능나눔단 운영 후 임직원의 봉사활동 참여율도 늘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난 11월 누적 임직원 4300여명이 봉사활동을 했으며, 이는 임직원 80%이상(휴직자, 해외파견자 제외)이 참여한 것으로 지난해 비해 1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은 CJ제일제당 임직원과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임직원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활동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거주지 근처 담벼락에 형형색색의 그림을 그려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진행했으며

매년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역을 넓혀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공식적인 재능나눔단 활동 외에도 지역과 환경을 생각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소녀들을 위해 생리대를 만들어 전달하는 활동과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 시중 가격의 10배를 주고 폐지를 구매해 임직원이 캔버스를 제작하는 활동 등이다. 만들어진 캔버스는 아티스트가 작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판매로 생긴 수익금은 다시 노인들을 돕는 데 쓰인다.

CJ제일제당은 본사를 비롯한 전국 사업장에서 연간 15회에 걸쳐 헌혈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명의 나눔 활동을 통해 모인 혈액과 헌혈증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 전달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직원이 언제든지 헌혈증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헌혈기부은행을 운영, 헌혈 참여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임석환 CJ제일제당 CSV경영팀장은 "CJ제일제당은 식품업계 1위 기업에 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활동을 진행,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CSV(공유가치창출)를 실천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CJ의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